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_ Driving Tomorrow NEXEN

# 헬로우 넥센



Hello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 Vol.54 2014년 신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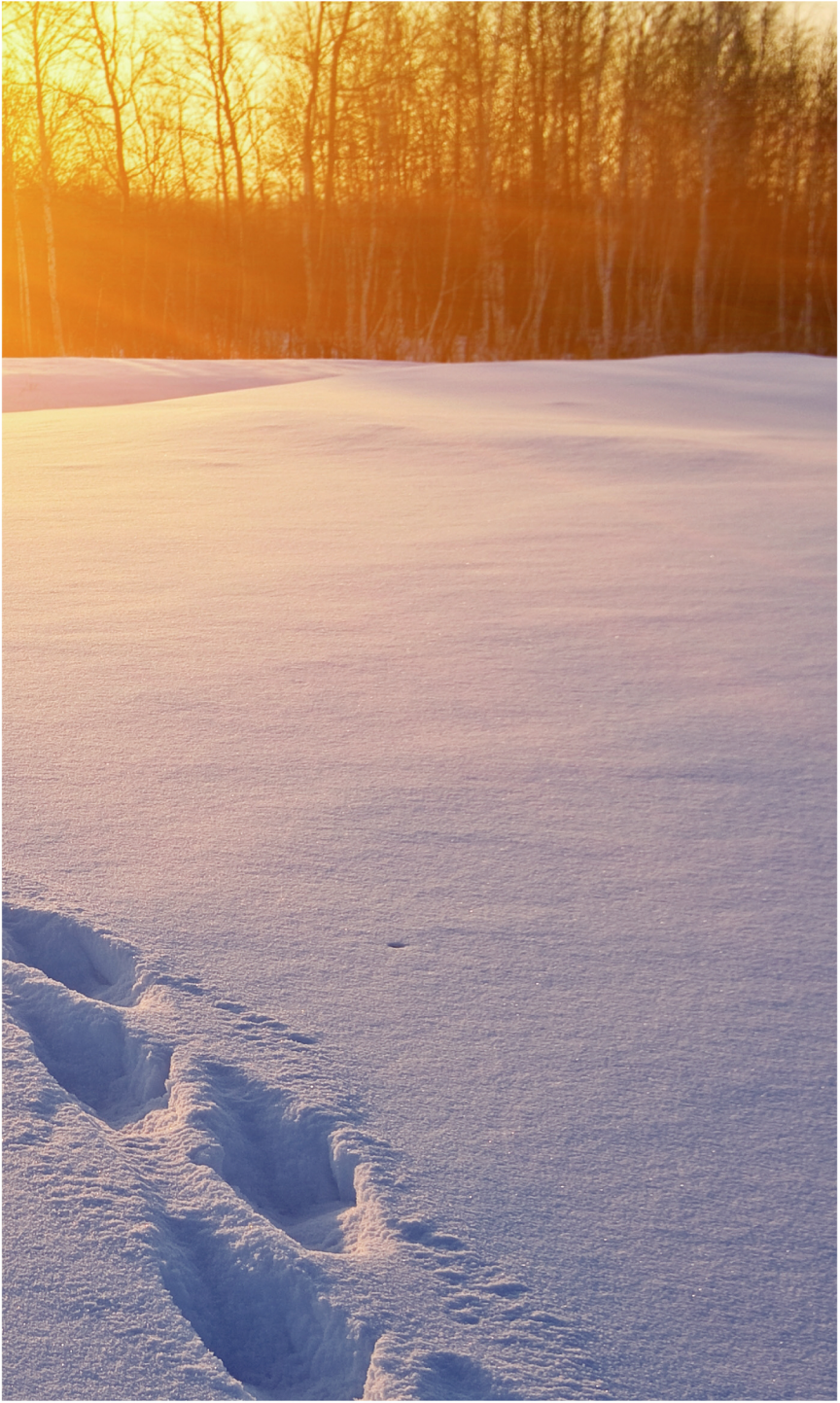


언제나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치열하게 뛰던 순간도, 주저앉아버릴 뻔했던 순간도  
모두 흔적이 되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자, 잠시숨을 고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둘러봅시다.  
그리고 신중하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겠지요.  
이렇게 남긴 발자국이 곧 내 인생의 역사일 테니 말입니다.

다 시 , 한 발 내 딛 는 걸 음



**표지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보물지도,  
액션 플랜(Action Plan)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새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막연히 꿈만 꾸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N value

- 04 Column  
실행을 지배하는 계획의 힘
- 06 Story  
유비무환, 계획과 준비의 달인들
- 10 Interview  
차근차근 정상으로, 방송인 박은지
- 14 Culture  
흔흔한 사진집으로 월동 준비 끝
- 16 N Hero  
산악자전거 마니아 안흥섭 소장
- 20 Money Tip  
노후대책 자금 준비하기
- 24 N Mind  
"첫 월급,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 N life

- 28 Drive & Leisure  
겨울바다의 낭만, 삼척 새천년도로
- 34 Family Day  
PCR파트 손수석 사우 가족 볼링 체험
- 38 Food Story  
넥센 사우들이 추천하는 양산의 육해공 맛집
- 42 Health Plus  
겨울철 골절사고 대처법
- 44 Kids Love  
일기로 키우는 우리 아이 논술실력
- 46 Wide Road  
산타 마을, 핀란드 로바니에미

## N company

- 52 Team Story  
고객만족팀의 2013 워크숍
- 56 Cross Class  
생산 · 품질팀 대리들의 크로스 회식
- 60 Happy Together  
신입사원 연탄 봉사 활동
- 64 Letter Box  
내게 힘이 되는 우리 아이 러브레터
- 66 Tire World  
타이어 디자인의 진화, N9000
- 68 Nexen Friends  
타이어테크 송파점

## News center

- 72 On Air 1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 레이싱팀
- 74 On Air 2  
세마쇼 참가
- 76 Nexen News  
넥센 뉴스

- 82 N Voice  
사보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83 Epilogue  
포토퍼즐 및 당첨자 발표

###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4년 신년호 통권 54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4년 1월 10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 실행을 지배하는 계획의 힘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너무나 와 닿지는 않은지... 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내지 않기 위한 몇 가지를 가슴에 새긴다면 수확이 큰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찾기에 조금이라도 열심인 사람이라면, 최소한 몇 권의 실용서를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저자마다 조언하는 내용이 다른 까닭에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그만 두어본 적도, 때로는 꽤 괜찮은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낸 적도 있을 것이다.

실천이 미흡할 뿐, 계획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소개하려 한다. 이것은 필자가 복잡한 일정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제법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다음의 3가지 팁을 즉각 실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첫째, **머리를 비워라**. 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일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통제감을 상실할 때 생기는데, 통제감의 상실은 대부분 머릿속이 포화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각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라. 많은 일거리를 한꺼

번에 꺼안고 있을수록 해결이 더디지 않던가. 늘 허둥거리며 뭔가를 하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앞뒤 없이 생각과 고민만 많다는 것이다. 계획을 세웠다면 그 외의 사항은 깔끔하게 지우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은 노트나 메모지, 스마트폰 등 **어디에나 기록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마감시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등 마무리할 시간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성과를 만  
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  
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꼭 중장기적인 일에만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너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해도 3시간의 마감시간을 두고 계획을 토박토박 적어보자.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단시간 내에 성과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  
신한다.

마감시간 내에 달성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본인에게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일이다. 두뇌를 미사일에 비유한다면 이 행위는 정확한 과녁, 즉 목표 지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셋째, 계획을 세웠다면 완벽한 상황이나 조건, 기분 상태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 계획을 세운 다음 사람들이 미적거리는 데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이런 저런 조건들이 만족되면 그때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완벽한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지기는 쉽지 않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10이라면 일단 1이라도 시작해 보라. 시작만 한다면 자신감도, 일에 가속도 붙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해야 하는 일의 작은 조각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④

*달성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그 일을 실천함에 있어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 유비무환! 계획과 준비의 달인들

많은 이들이 특별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날 때부터 특별한 삶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열정이다. 그런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24시간을 철저히 쪼개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한다. 열정이 불꽃이라면, 빈틈없는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불꽃을 태울 충분한 땀감과 신선한 산소라고 할 수 있겠다.

## 내게는 규칙이 가장 편안하다

걸어 다니는 인간 시계, 임마누엘 칸트

매일 독일의 한 대학 교정을 산책하는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이 남자를 보곤 그때가 오후 6시 15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시간 관리에 관한 일화다. 한번은 칸트의 시계가 고장 나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밥을 늦게 짓게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시계탑이 아니라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 그가 미리 준비된 계획을 어긴 것은 평생 두 번뿐이었다고 한다. 한번은 프랑스 대혁명(1789) 때 신문을 읽다가, 다른 한 번은 루소의 교육서 〈에밀(Emile)〉을 읽다가였다. 전자는 워낙 그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고, 후자는 칸트에게 깊은 영감을 남긴 책이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특별한 두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스로 지킨 계획과 규칙, 시간약속에 맞춰 24시간을 살았다. 그에게 예외와 변동이란 없었다.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5시면 일어났고 오후 9시면 침대에 들어갔다. 연구와 집필, 강의, 식사와 휴식, 담소 등은 제각각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인 심장질환과 호흡기 장애를 자주 앓아 몸이 약한 칸트에게 부모님은 규칙적 생활이 몸에 배도록 가르쳤고, 어릴 적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 것이다. 칸트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극복했고, 그 결과 누구보다 밀도 높은 연구를 하여 대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 머나먼 꿈 대신 단 하루의 철저한 계획

20만 시간의 집중력, 강수진

동양인 최초 스위스 로잔 발레 콩코르 우승, 동양인 최초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입단, 강수진의 수식어는 온통 ‘최고’와 ‘최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들은 말은 “넌 안 되겠다”, “할 수 있겠니?”, “포기하는 게 어때?” 등의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천재형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작이 완벽해질 때까지 하루 19시간을 이 악물고 연습했다. 그녀가 한 토크쇼에서 했던 “아침마다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 아파요. 아프지 않으면 연습을 덜 한 것이지요” 라는 말처럼, 강수진에게는 고통이 곧 설렘과 두근거림이었다.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뼈, 뭉개진 발톱, 굳은살 투성이의 두 발은 그 시간의 증거이다.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는 표현력, 섬세하고 화려한 기술과 카리스마는 그녀가 쌓아 올린 20만 시간의 결과다. 서른 살이 넘어 큰 부상으로 실의에 빠진 그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말을 되뇌었다. 이후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단 하루치의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지면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만족했다. 또한 연습과 공연을 분리한다는 생각을 무용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라고 보고, 매 연습마다 온 힘을 다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시작했으면 끝장을 본다는 것은 스위치를 켜다 끄듯이, 혹은 OX 퀴즈 문제 중 하나를 답으로 고르듯이 순간순간에 결정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게 매일의 연습이 공연인 이유죠.”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발레리나이자 전 세계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최고령 발레리나, 강수진. 그녀의 성공 비결은 하루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루의 매 순간에 대한 극도의 집중력이었다.





## 나를 완성하는 신비로운 수첩

미국 최고의 르네상스맨, 벤자민 프랭클린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인물, 프랭클린. 프랑스 정치가 튀르고는 프랭클린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하늘에서는 번개를, 군주에게서는 권위를 빼앗았다.” 프랭클린은 여든 네 살까지 미국 최고의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저술가로 정열적인 활동을 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정치사상가였다. 프랭클린은 번개에 대처하기 위한 피뢰침을 발명했고, 연날리기 원리를 통해 번개가 전기라는 점을 증명했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도시 발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외교가로서는 힘의 균형을 꾀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결합 방식을 주장했고, 정치가로서는 식민지 연합과 단일 정부를 위한 연방 모델을 제안하는 기획안을 구상했다. 철저한 시간관념과 끊임없는 자아 반성의 결과, 그의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하고 혁신적인 것은 프랭클린 자신이었다. 한번은 그가 일하던 서점에서 한 손님이 책값을 물었다. 그가 “1달러”라고 말하자, 손님은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이제 그 책은 1달러 15센트”라고 답했다. 손님에게 대답하는 동안 낭비한 자신의 시간 값을 덧붙인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시간을 금으로 여겼다. 한편 그는 젊은 시절에는 종종 비판적이고 빈정거리는 태도로 인해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위한 4가지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인쇄업자로 성공한 후에는 평생 지킬 13개의 덕목을 정해 준수했다. 프랭클린은 매일 밤 체크리스트를 펴고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온건,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을 잘 지켰는지 돌아봤다. 프랭클린의 인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렇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의 계획과 덕목은 오늘날까지도 각종 자기계발 이론과 함께 프랭클린플래너로도 이어져오고 있다.



빈틈없는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보통의 삶을 특별하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원천이 된다.

## 전하,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순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얻은 업적이다. 이는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한다. 적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던 전력, 조정의 지원도 얻지 못한 불리한 상태에서 얻은 기록이기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더욱 전설이 됐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침공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 대군을 보내 부산포를 기습 공격했고, 이에 조선 반도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소홀한 국방, 당파 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던 조정, 병역의무를 회피하던 양반들, 그로 인한 무정부패가 공공연한 상황 속에 수도 한양은 불과 한 달 만에 함락됐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군사를 양성하고 군량미를 비축했으며 군선 정비 및 거북선을 건조했다. 그는 틈만 나면 전쟁사를 비롯한 역사서를 탐독하고 손자병법 등의 병법서도 꾸준히 공부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고민과 사색을 통해 현실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냈으며, 이를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그는 ‘요행’이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싫어했다. 전쟁에 있어 경우의 수도 따지지 않았다. 오직 미리 계산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순신의 가장 큰 덕목은 눈앞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에 있었다. 다만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할 뿐이었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치밀한 작전뿐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 직장인들에게도 유의미하다. ㉞



전방위 방송인 박은지

# 펭귄의 비행, 일생의 파닥거림

전직은 날씨의 여신, 현직은 전방위 방송인 박은지. <나는 가수다 2>에 메인 사회자로 섰고,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선 탱고를 뛴다. <SNL>에서는 개그우먼 안영미와 섹시함을 겨뤘고 숙취해소제 광고에서는 ‘만취녀’로 분해 아스팔트 바닥에 고운 얼굴을 문댔다. 그렇게 엄청난 활동량을 뽐내는 사이 팬도, 안티도 늘어났다. 제 직업에 성실한 만큼 유명세를 얻었지만, 동일한 분량의 비아냥도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덕분이다. 하지만 여기, 스포트라이트 밖 그녀는 밤샘 촬영을 하고도 균형감 있는 컨디션과 단단한 눈빛을 보여줬다. 단 한 번의 비상을 위해 파닥거리는 모든 시간이 즐겁다는 박은지는 생각보다 건강하고, 계획적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라디오 <박은지의 파워FM> 시작을 축하한다. 기분이 어떤가?**

꿈만 같았던 것도 잠시, 바로 무서운 현실이 닥쳐왔다. 주 6일 생방송을 소화하는 라디오 디제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소요되는 직업이다. 오전 7시 방송이라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난다. 밤 10시에는 잠들고 약속 같은 건 꿈도 못 꾸다. 아침 방송 특성상, 뉴스 브리핑, 피플 인터뷰, 사연 읽기, 곡 소개 등의 다양한 코너가 씨실과 날실처럼 짜여있다. 게다가 TV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큰일이다. CP님들, 소위 선수들은 방송만 듣고도 “어제 술 마셨니?” 집어내실 정도니까 초긴장 상태지.

**라디오 게스트를 꽤 했다. 라디오 매체의 긴장감에 익숙하지 않나.**

게스트 만년해도 디제이는 새로운 영역이더라. 호스트로서 매끄러운 진행을 하는 동시에 시간도 계산해야 하고, 게스트의 기분도 살피고, 찰나의 순간에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철저히 긴장하되, 그 긴장을 절대 티 내지 않을 것! 디제이의 모토다. 그 균형을 가장 잘 잡는 사람이 최화정 언니다. 언니가 “음...” 하고

말을 고르면 생방송의 빛나는 ‘간지’다. 내가 “음...” 하면 방송 사고다. (웃음) 그게 연륜의 차이겠지.

**박은지만의 전략과 무기가 있다면?**

같은 시간에 쟁쟁한 선배들이 포진되어 있다. 전현무 선배, 황정민 선배, 그리고 나. 그래서 오전 7시가 로 열타임이 되었다. 베테랑과 초짜의 경쟁구도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의 노련함과 재미, 끼를 따라갈까. 욕심은 안 부린다. 그냥 ‘83년생, 모든 일에 열심히, 항상 밝고 유쾌한 사람’인 박은지를 보여주면 그 마음이 닿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는 공감. 청취자와의 공감 코드를 찾기 위해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눈다. 다만 7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 봤기에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더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디제이로서 목표는 뭔가?**

당장은 ‘2등 유지’. 청취율 조사에서 우리 방송이 청취율 2위를 했다. 이숙영 선배님이 일궈 주신 말이다. ‘고맙습니다’란 멘트를 자주 한다. 방송에 광고를 주는 기업과 청취자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

라디오 디제이에게는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사연 읽기, 곡 소개 등 다양한 코너를 능숙하게 소화해내야 하고, 늦은 밤 약속은 꿈도 못 꾸며 목소리라도 상하면 큰일이다.

화려한 외모를 배반하는 성격 같다. 방송을 들으니 반듯한 속내가 느껴지더라. 굉장한 모범생 같기도 하고.

외모만 보면 ‘파티피플’ 같지? 되게 보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나지 싶다가도 사생활 다 버리고 고생하는 스태프들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재미없다는 말도 듣는다. 예컨대 청취자 사연 읽고 “정신 차려어~”라고 해서 재밌을 때도 있잖나. 근데 못 그러겠더라. 이제 막 내게 다가온 분들이니까. 핸드폰 번호만 보고도 청취자를 아는 10년 차 디제이들처럼 ‘진짜’ 인간관계를 맺을 정도가 되면, 막말도 허물없는 장난이 될 수 있겠지.

**오전 4시에 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

비트 있는 음악을 계속 듣는다. 박명수, 컬투의 팟캐스트를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간다. 긴장할 때마다 어깨 스트레칭하고, 집중하면 두통이 오기에 종종 두피 마사지하고. 그래서 방송국 문 열기 전에 ‘최고로 신이 난 박은지’가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방송 마칠 때 가장 신이 나는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 “이 사람과 일하면 참 유쾌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출연료나 인기보다 소중한다.

시간 관리 면에서 일찍 일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감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업이니 밤의 기운을 축적해야 할 수도 있고, 사색이 필요하기도 하지 않나.

대신 피부건강은 좋아졌다. 다 가려서 티가 안 났지, 전에는 트러블이 심했거든. 요즘은 황금타임에 꼭 자니까, 라디오가 내게 복이다.



하고 싶은 캐릭터를 단박에 맡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차근차근 올라갈 거다. 먼 미래에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당장은 개그쇼에서  
망가져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자는 걸 싫어해서 늘 뭔가를 하는데, 요즘은 가상 시뮬레이션  
을 한다. 청취자 사연을 여러 상황으로 상상하고 리액션을 연습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문이 막히지 않도록!

#### 시간관리 팁이 있다면?

생활이 불규칙하니 빈틈을 잘 채워야 한다. 한 시간이 빈다? 바로 뭔가에 집중  
한다. 밀린 모니터링, 책 읽고 메모하기, 시사 뉴스 읽기. 책도 획획 스킵하면  
서 정보를 발췌하는 스타일이다. 2시간이 빈다면 연기 수업, 운동하러 간다.

#### 싫은 일도 마다할 수 없는 때가 있을 텐데.

나는 장기플랜과 최종 목표가 뚜렷하다. 하지만 인생엔 늘 변수가 있기 마련  
이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장기플랜이 대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전술을 쓴다. 닥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내가 힘들지 않더라. 만약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냐'라고 마음먹으면 괴  
로울 뿐이겠지. 나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회를 얻기 위해 하기 싫  
은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먼 미래에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되  
고 싶지만, 오늘 당장은 개그쇼에 출연해 우스꽝스럽게 망가져야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그게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이라면, 싫은 티를 낼 수는 없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게 살지 않나. (웃음) 그럴 때 나는 생각한다. '그래, 앞으로 좋은  
일 하나가 오겠군!'



#### 긍정적인 성격인 것 같다.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소중한 한마디가 있나.

“다, 그렇게 살아” 동업 오빠의 조언이다. 사는 거 별거  
없고, 다들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자만하게 될 때는 “네  
가 올라갈 때 만난 사람들, 내려갈 때 다 만날 사람들이  
야”란 말.

#### 기상캐스터로 7년을 활동하고야 주목을 받았다.

6년 동안 막내였다. 오늘처럼 11월에 눈이 오면 비상사  
태다. 자막에 기사에, 팩스 받고 전화받고 정신이 하나  
도 없다. 그러고도 예보가 틀리면 욕을 먹는다. 기상캐  
스터로서의 미련은 없다. 그만큼 후회 없이 재밌게 일  
했다. 처음 맡은 광고는 두부 광고였다. 재밌어 보이기  
에 별걱정 없이 무작정 열심히 했다. 지금보다 훨씬 통  
통했을 텐데 좋게 봐 주셨는지 광고, 방송이 몰려왔다.  
그때가 수입이 더 좋았던가? (웃음)

#### 연기가 꿈인데, 어떤 캐릭터를 맡고 싶은가?

나는 나를 잘 안다. 하고 싶은 캐릭터를 단박에 맡을  
수는 없다는 것도. 차근차근 올라갈 거다. 배우 김정은  
씨를 좋아하는데, 그의 연기엔 유쾌하고 코믹하면서  
도 섬세한 디테일이 있다. 해외라면, 카메론 디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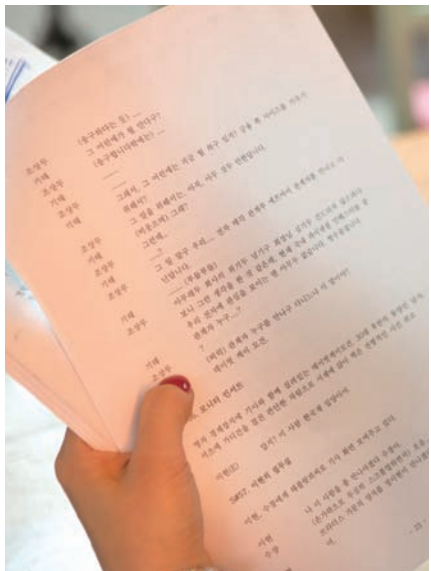
사랑스러우면서도 망가질 땐 과감하게 망가지는 역할  
을 맡고 싶다. 내가 청순가련형을 하겠나? 그래서 지  
금 최선은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 연기다.

#### 지금까지의 삶을 토대로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 다면?

펭귄. 펭귄이 파닥거리는 것을 보면 ‘언젠가 날 수 있  
겠지’ 하는 희망을 품은 것 같다. 나도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정작 날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  
지, 허무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한 번 날기 위해 파닥거  
리는 그 모든 시간이 좋으니까, 지금 나는 행복하다.

#### 오늘 인터뷰로 박은지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사 라졌다.

기획주의자다, 너무 여러 분야에 손대는 것 아니냐고  
들 한다. 댓글을 보면 “뭐하는 사람이나”는 말이 가장  
많다. 지인들이 착해놔서 칭찬만 해주니까 일부러 댓  
글을 본다. (용감하다) 에이, 죽으란 것도 아닌데 뭐.  
욕을 워낙 먹어서 웬만한 건 눈물이 안 난다. 악플을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대중 곁에 꾸준히 있으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 색깔  
을 알아봐 줄 거라 믿는다. 그전에 내가 나를 정의할  
수도 없고, 착한 척, 겸손한 척 하기도 싫다. 대중이 내  
정체성을 정해줄 날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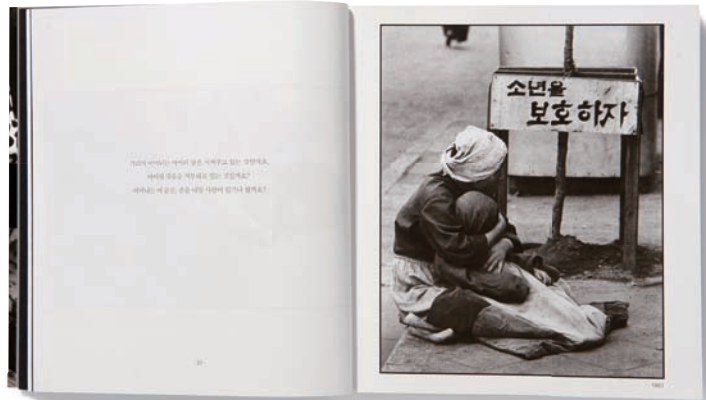




전기장판과 쿨은 옵션!

# 훈훈한 사진집으로 월동준비 끝

유난히 한파가 매서운 올겨울.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밖은 추워서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다. 무엇을 할지 몰라  
따분하게 TV 채널만 돌리고 있다면 긴긴  
겨울을 이용해 감성 채우기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건 어떨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사진집을 소개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최민식·조은, 샘터, 9천500원

“남루하지만 눈부신 서민들의 삶”

부산을 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비주류 사진작가故최민식의 사진집. 갑작스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벌어진 틈 속에 갇혀버린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흑백사진 안에 정갈하게 담았다. 얼핏 보고 지나쳐버릴 장면에서 시인 조은이 짧은 글귀를 붙임으로써 사진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밝은 빛을 향해 발돋움하는 그네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내가, 참 좋다

강재훈, 푸른지식, 1만9천800원

“1세부터 100세까지,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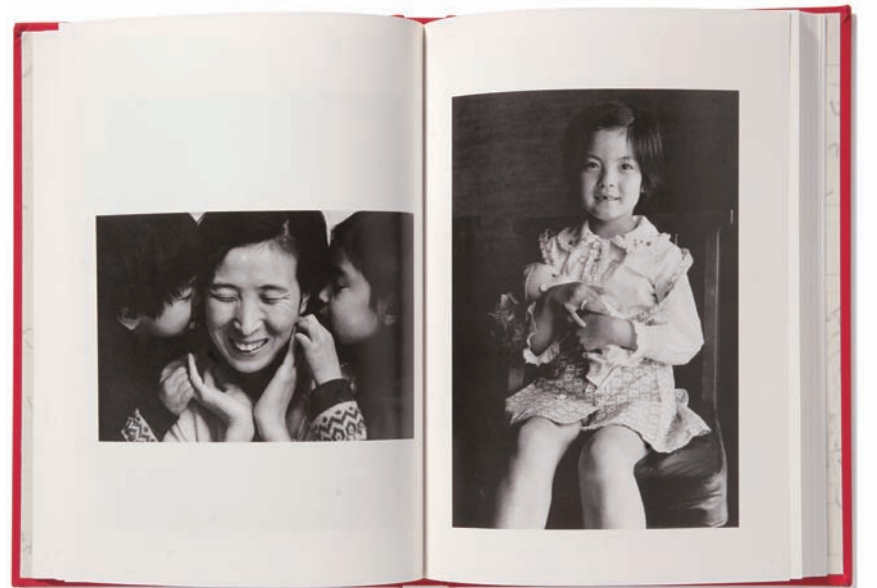
컬러풀한 내지의 사진만큼이나 1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담은 사진집이다. 풍선껌이 되어 날고 싶은 7살 꼬마, 막걸리 장인이 되고 싶은 18세 소녀, 딸의 칠순 잔치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92세 할머니 등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한 장 한 장 사진집을 끝까지 다 넘기고 나면 어느새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윤미네 집

전용각, 포토넷, 2만8천 원

“아버지가 찍은 딸의 성장기록”

어릴 적 사진 속에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답은 사진집 <윤미네 집>에서 찾을 수 있다. 딸 윤미가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의 기록을 소박하지만 가슴 뭉클하게 엮은 사진집으로 아마추어 사진작가故전용각 선생의 가족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점점 나아지는 윤미네 살림살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음의 렌즈로 세상을 찍다

케이채, 퍼플카우, 1만8천 원

“프레임 너머로 바라본 찰나의 세상”

시간에 쫓기는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없다. ‘사진 위주의 여행’이 아닌 ‘여행 위주의 사진’이 돼버리는 것이다. 여행하는 사진가 케이채는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자메이카의 무지개, 오늘의 메뉴를 적는 멜버른의 알바생, 예루살렘의 고양이 등 보통의 순간들이지만 흔하지는 않은 것들. 관광명소만 빼곡하게 적힌 여행서적에 질렸다면 이 사진집을 추천한다.



스마트폰, 일상이 예술이 되다

김민수, 책과나무, 1만5천 원

“잘 찍은 폰 사진 한 장, 열 DSLR 안 부럽다”

값 비싼 DSLR을 사놓고도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술 같은 순간은 카메라를 지니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는다. <스마트폰, 일상이 예술이 되다>는 늘 지나치던 일상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작품사진 못지않게 담아낸 사진집이다. DSLR을 장만하기 위해 적금까지 붓고 있는 당신이라면 당장 이 사진집을 만나보자. 밀려드는 허무함과 놀라움을 참지 못할 테니까.㉸







산악자전거 마니아 UHP파트 안흥섭 소장

# 나는 오늘도 달린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전거와 함께 산을 찾는다.  
부상을 당하는 일도,  
넘어지는 일도 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은 한계를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  
하지만 그는 달리고 또  
달린다. 무엇이 그렇게  
안흥섭 소장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페달을 밟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 산악자전거 마니아 납시오~

보통 체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걸어서 산을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락내리락한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산중에서 하자고?  
산악자전거 마니아라는 안흥섭 소장의 요청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와 만나기로 한 금정산 임도길,  
어디쯤 왔을까 주위를 살피던 그때 “쉬이익~”  
소리를 내며 자전거 여러 대가 멈춰 섰다.  
“평소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실 여유가 별로 없으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산에서 인터뷰하자고 했어요. 자전거 타고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저희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은근슬쩍 산악자전거 예찬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 빠져도 단단히 빠진 마니아임이 틀림없었다. 게다가 자전거를  
즐거 타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덕분일까. 안흥섭 소장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무척이나 건강해 보였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넥센의  
산악자전거 동호회 ‘블루바이크’ 회원들 역시 마찬가지. 초겨울  
바람이 매서워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 이 사나이들의 얼굴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있다. 그들의 얼굴만 보면 거짓말 좀 보태어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 I LOVE 블루바이크!

2010년까지만 해도 그에겐 특별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업무가 끝나면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게 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간에 정도 제법 쌓여 회사생활도, 여가생활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동호회 가입 후 산악자전거를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는 날이면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돼요. 늘 함께하다 보니 동료에도 얼마나 끈끈해졌는지 몰라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해발 600~1,000m의 산을 오르내리며 부대끼다 보면 당연한 일이다. 춘추공원, 오룡산 등 좁다란 폭에 한쪽은 절벽이라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코스도 여러 곳. 이런 험한 길을 오롯이 두 바퀴와 동료들에만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쳐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산 후 여럿이 둘러앉아 시원~하게 한잔 하다 보면 고단한 라이딩도 늘 달큰하게 마무리된다.



## 두 바퀴에 자신을 걸다

“산악자전거 최고의 묘미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다운힐’에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촬영 때문에 경사가 심하지 않은 코스로 와서 아쉽게 되었네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안홍섭 조장에게 산악자전거의 가장 큰 매력을 물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다운힐(Down hill)의 아찔한 스틸을 꼽았다. 올라갈 땐 세상에서 가장 괴롭지만 그 순간만 이겨내면 내려올 땐 시원한 산들바람을 쐬 수 있다는 것. 다운힐은 짜릿한 속도감에 비례해 위험 요소가 많은 주행법이다. 가속도가 붙으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역시 크고 작은 사고를 여러 번 겪은 바 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땐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산악자전거 최고의 묘미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다운힐’에 있어요.  
올라갈 땐 세상에서 가장 괴롭지만  
그 순간만 이겨내면 내려올 땐  
시원한 산들바람을 쐬 수 있지요.



하지만 함께 간 사람들과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산의 전경을 보면 ‘아 정말 이 맛에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희열을 느끼죠.”

산악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들은 그런 희열을 가리켜 ‘산뽕’이라고 부른다. 한번 자전거로 산을 타면 끊을 수 없다는 뜻인데, 마치 마약과도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이 ‘산뽕’의 기운을 빌려 안홍섭 조장은 블루바이크 회원들과 함께 조만간 해발 966m의 배내봉에 오르고자 한다. 블루바이크 동료들과 함께 페달 위에 발을 얹고 배내봉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은 모험과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가슴속에 새겨질 것이다.<sup>19</sup>

스트레스가  
파파  
돌려요.

차로는 못가는 길도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지요~

나는  
오늘도 산뽕  
맛있게  
잡네데이~

진짜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산악자전거의  
묘미는  
다운힐!

실력 느는  
재미가  
쑥쑥~

정상 정복의  
자랑심을  
느껴보세요.

도전과 모험을  
좋아해요,  
난 상남자니까.





현명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 노후대책 자금 준비하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살아갈 날은 많이 남은 데 비해 경제 활동 시기는 한정되어있어 젊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합리적인 노후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민소득이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국력에 맞지 않게 은퇴한 노인들의 빈곤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노인 가구 중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비율이 36.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도 역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의 59.3%가 노후대비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후준비 방법으로 저축, 국민연금, 연금보험 등을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로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5.4%에 불과했다. 현재는 예금 금리가 2%대에 불과해 저축으로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대로 가면 노인가구의 빈곤현상이 젊은 세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직장인들의 노후준비 실태

-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 59.3%
- 노후준비 시작(시작예정) 시점 : 평균 37.6세
- 노후준비 방법 : 저축 27.1%, 국민연금 20.3%, 연금(보험) 19.6%, 보험 12.4%, 퇴직금 9.7%, 증권/펀드 투자 5.4%, 부동산 투자 3.8%
-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한 평가 : 5점 만점에 1.7점

(자료 : 커리어, 2013년 11월)







현명한 투자는 당신에게  
풍족한 노후를 선물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합리적인 노후 준비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은퇴 후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연금이 소중하다. 직장인들은 탄탄한 연금 관리로 기본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되,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노후자금 마련의 첫 번째 방법은 **퇴직연금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법이 변경되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직장을 여러 번 바꾸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회사가 관리하든(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든(확정기여형·DC형) 너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매우 낮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 중 93%를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퇴직연금 주식투자 비중이 60~70%에 달할 만큼 외국에서는 퇴직연금 상품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주식, 채권과 같은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

(단위 : %)							
은행예금	저축은행 예금	비은행 금융기관예금	개인연금	주식 (직접투자)	펀드 (직접투자)	계(契)	기타
70.3	8.5	11.8	1.8	2.3	2.5	0.3	2.5

자료 :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연금저축)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변액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다. 이 중 국내 도입된 상품 중에서 가장 고수익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 연간 1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투자에 능숙하지 않아 주식펀드보다 보험형이나 은행 신탁형으로 운용한다. 연금저축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원금보장형에 수익률이 낮은 보험형이나 신탁형을 피하고 펀드형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의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에서 지난 10년간 평가를 보면 은행 신탁형 연금저축과 보험형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연평균 3~4%인 반면 펀드형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연평균 12~13%로 높게 나와 있다. 연금저축을 고를 때는 비용과 수익률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하고,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상품비중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축보다는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 보장상품에 저축하다 보니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노후자금, 주택구매자금, 자녀 학자금과 같이 최소한 5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자금들은 저축보다는 투자를 해야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6%에 불과하기에 주식과 채권에 대한 현명한 투자로 저금리를 극복해야 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여유자금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은행 예금'이 70.3%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금융기관 예금' 11.8%, '저축은행 예금'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방법인 '주식'은 2.3%, '펀드'는 2.5%에 불과해 거의 모든 국민이 투자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를 과도하게 피하면 수익률이 낮아져 수익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않다.

현명한 투자방법

앞서 저금리 시대에 노후자금과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2~3년 이내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피하고 예금상품에 저축하는 게 좋지만 4~5년 이상 장기간 운용할 자금이라면 펀드형 상품을 이용해서 간접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펀드에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는 급여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방법이다. 다양한 펀드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면 적어도 정기예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도중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자. 지금까지 종종 발생했던 주가폭락도 장기간 투자로 모두 극복해낼 수 있었다.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손실이 났다고 저축성 상품으로 바꾸면 결코 좋은 투자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할 때에는 손실 위험성과 수익률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가격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우직한 태도가 필요하다.⑩





# 첫 월급,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함께한 추억들은 항상 소중합니다.  
첫사랑, 첫 운전, 첫눈, 첫 데이트 무수히 많은  
첫 추억 중에서 조심스레 '첫 월급'의 추억을 꺼내봅니다.

'첫 월급'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바늘구멍과도 같은 좁은 문을 넘어 간신히 취직하니 업무는 또 왜 그리 어려운지. 신입사원 특유의 넘치는 패기도 잠시뿐, 하는 일마다 우왕좌왕 실수는 또 얼마나 잦았던가요. 마치 1년과도 같은 힘겨운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바로 첫 월급이지요. 대부분 직장인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라고 하니 그 기쁨이 오죽할까요. 그런데!

혹시 월급에 발이라도 달린 것일까요? 대부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첫 월급은 반드시 부모님께 빨간 속옷을 사드려야 한다던데. 그간 취직 준비에 힘겨웠던 내게 힘을 준 이들에게 한턱내야 할 텐데. 아끼고 아껴도 참 쓸 곳이 많지요.

사내 설문조사를 통해 넥센타이어 사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사우들은 첫 월급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부모님께 선물 및 용돈을 드렸다!"입니다. 굳이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속옷을 드린 사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 밖에도 용돈, 선물 등으로 가족에게 감사를 표한 사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군요.

"취직했으니 한턱 씌!" 2위는 취직턱입니다. 힘들었던 취업 준비 기간에 의지가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사우들. 한 달의 노고가 한 번의 취직턱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우도 있네요. 대체 무엇을 얼마나 드셨기에...?

첫 월급을 본인을 위해 투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금통장을 개설했다는 의견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차곡 차곡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 절로 배가 부르다는 의견은 모두 같네요. 그 외에도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헬로우넥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어디하셨나요? 백뽕함? 아쉬웠? 아니면 흐뭇함? 어떤 마음이집든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던 신입사원 때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그 시절 꿈에 그리던 모토로라 뽕뽕을 샀더랬지요.

그동안 늘 고맙고 감사했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을 내도 너~무 낸 여파로 첫 월급 타고 몇 개월간 거지처럼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반강제적 적금통장 개설

첫 월급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 "월급, 스킷웃 안녕"

양산으로 이사 오면서 월세 보증금에 보탬음 ㅋㅋㅋ

평소 사고 싶었던 디카와 컴퓨터 구매!

하....



벌써 30년 정도 지난 옛날이야기다. 첫 월급 63,500원을 노란 봉투째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다.

부모님이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아 내복 및 용돈을 드렸습니다. 내복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시는 듯했습니다.

1만 원권 현금으로 전액 출금해서 어머니께 뿌려드렸습니다.

외아들 뒷바라지하시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하고 고생하신 어머님 터키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 등산복 폴세트로 사드렸고! 첫 월급은 오자마자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갔을 뿐이고!

어머님 강탈

가난한 학생 시절 친구들이랑 주머니 탈탈 털어 모은 만 원으로 학교 앞 술집에서 썸 어묵탕 하나 시켜 소주 아껴가면서 인생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오래 앉아있다고 주인아줌마가 눈치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서럽던지... 첫 월급 타자마자 한걸음에 달려가 그 집에 있는 메뉴 하나씩 다 시키면서 당당히 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 넥센타이어 LGV

무인자재운반차량(LGV)은 창고와 연계되어 생산라인간 반제품을 자동으로 이송합니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최첨단 무인 자동화 생산 공정은 반제품의 오사용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오염 및 손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N Finder는 넥센타이어의 구석구석을 담아내는 화보 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곳곳에 절경이 가득

## 삼척 새천년도로

여름바다가 열정이라면 겨울바다는 낭만이다. 시리도록 푸른 바다, 그리고 파도와 맞서 싸우는 바위들의 몸서리치는 절규가 바다에 가득했다. 해안선을 따라 제멋대로 생긴 크고 작은 바위들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 인적 없는 백사장에는 무심한 바닷바람이 주인인 양 여행자를 반긴다.



여행길에 멋진 해돋이를 만난다면  
그 또한 무한한 행운이 아닐까.

## 추암해수욕장에서 해돋이를, 새천년도로에서 드라이브를

통일전망대가 있는 고성에서 시작한 동해안 낭만가도는 속초의 대포항을 거쳐 강릉의 경포를 지나 강릉을 벗어난다. 겨울바다의 세찬 바닷바람을 이겨낸 뒤 도착한 곳은 동해와 삼척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추암 쫓대바위이다.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추암 쫓대바위는 새해맞이 축제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해돋이 명소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멋진 사진을 찍기에 열심이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은 정적이 감돈다. 오로지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파도소리와 '찰칵'하는 셔터소리뿐. 그 누구도 쉽게 정적을 깨지 못한다. 여행길에 멋진 해돋이를 만난다면 그 또한 무한한 행운이 아닐까. 추암해수욕장에서 아침을 열고 발길이 닿은 곳은 배용준과 손예진이 주연한 영화 <외출> 촬영지로도 유명한 삼척해수욕장이다. 특히 비치조각공원과 소망의탑을 지나 삼척항까지 4km에 이르는 새천년해안도로는 낭만가도의 절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기암괴석과 일렁이는 파도가 연출하는 환상적인 장면들은 그 어느 해안도로보다 감동적이다.



## 곰치국으로 속 달래고, 나릿골 마실 가고

삼척항에 다다르면 뱃속은 출출하다 못해 허기지다. 삼척항은 동해항과 함께 시멘트 반출기지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항구이다. 하지만 공업화된 항구의 느낌보다 어항의 느낌이 강하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들어선 곳은 곰치국 전문식당. 삼척항에는 곰치국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어림잡아 20여 곳은 되어 보인다. 가격은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 선이고 맛은 대동소이하다. 곰치를 남해안 쪽에서는 물메기라고 한다. 곰치국은 조선시대부터 널리 먹던 음식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맛이 순하고 술병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든든해진 배를 두드리며 삼척항과 정라동 나릿골 마실에 나선다. 정라동 나릿골은 삼척항을 병풍처럼 품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채도 높은 파란색과 오렌지색 슬레이트 지붕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비탈진 언덕에 자리한 집들이 위태로워 보이지만 저마다 제법 그럴싸하게 터를 잡았다.

### Info

**삼척 낭만가도 따라잡기** 추암 쫓대바위 → 증산해수욕장 → 삼척해수욕장 → 새천년해안유원지 → 비치조각공원 → 소망의탑 → 죽서루 → 성내동성당 → 맹방해수욕장 → 궁촌해수욕장 → 해양레일바이크 → 용화해수욕장 → 궁촌해수욕장(셔틀버스이용) → 해신당공원  
**문의** 033-570-3545~6  
tour.samcheok.go.kr







## 관동팔경으로 손꼽히는 죽서루와 아담한 성내동성당

죽서루 앞에는 3백년 된 회화나무가 위용을 뽐낸다. 왼편으로는 용이 지나가면서 만든 구멍이라 전해지는 용문바위가 있고 동쪽에는 작은 대밭이 조성되어 있다. 사시사철 푸른 잎과 곧은 절개를 간직한 대나무가 죽서루에서 시와 문학을 논했을 선비들을 연상시킨다. 자연과 어우러진 절대적인 조화미가 최고 경지에 올랐다. 송강 정철은 죽서루와 오십천을 관동별곡에 소개하면서 '죽서루에서 내려다보는 오십천 경관과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와 절벽부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고 격찬했다.

자동차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성내동성당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이다. 소박한 외관에서 정갈한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1949년에 건축된 이 성당은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성당 중 하나로, 장식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절제미가 특징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성당과 가까운 곳에 동굴신비관과 삼척시립박물관 등이 있으니 잠시 둘러봐도 좋다.



### Tip 함께하면 즐거운 Leisure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는 궁촌해수욕장에서 용화해수욕장까지 5.4km구간의 해안을 따라 복선으로 운영된다. 약 1시간이 소요되는데 솔향 가득한 솔숲길 구간과 화려한 조명쇼를 관람하며 터널을 지날 수 있는 구간,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질주할 수 있는 구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추위를 막아준다. 하지만 보온에 필요한 옷은 반드시 챙기는 게 좋다.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촌해수욕장 정거장이나 용화해수욕장 정거장에서 매표를 하면 된다. 주말에는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 예매가 필수이다.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정거장 사이를 셔틀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문의 033-576-0656~8

[www.oceanrailbike.com](http://www.oceanrailbike.com)



해안절벽과 파도를 친구삼아  
달리는 여행.  
어떤 계절보다도 겨울에  
더욱 낭만적이다.



## 민망함에서 친숙함(?)으로

삼척 낭만가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해신당공원(033-572-4429)이다. 이곳은 신남마을에 전해지는 '남근승배민속'을 토대로 만들어진 테마파크이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의 애틋한 사랑이 숨어있는 전설을 따라 공원 곳곳에 마련된 조각품과 전시물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연인과 함께 해안절벽과 파도를 친구삼아 달리는 낭만가도의 즐거운 여행. 다른 어떤 계절보다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낭만드라이브가 아닐까.

때문에 주말이 더욱 기다려진다.📞



PCR파트 손수석 사우 가족

# 퍼펙트한 가족의 퍼펙트한 볼링 체험기

PCR파트의 손수석 사우에게는 특별하고도 완벽한 아내가 있다. 바로 2013 소피아 농아인올림픽대회 볼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정정연 씨다. 대단한 엄마이자 아내에게 볼링 한 수 배우고자 온 가족이 볼링장으로 출동했다. 이들 가족의 의욕 넘치는 볼링 체험 현장을 공개한다.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과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부부의 모습에서  
넘치는 행복이 묻어난다.



## 우리 가족 행복도, 사랑도 스트~라이크!

볼링장에 먼저 도착한 12살 아들 호진이, 10살 딸 유진이와 손수석 사우, 아내 정정연 씨가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혹시나 아이들이 낯가림을 하면 어찌나 싫었는데, 기우였을까. ‘꼬꼬마 초딩’답게 신나게 볼링장을 누비고 다니느라 바빠 보였다. 청각장애가 있어 눈빛과 몸짓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부부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

서로를 향한 뭉근한 애정표현에서 짐작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였다. 손수석 사우는 늘씬한 몸매에 마음씨까지 고운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당시 남편에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거리낌 없는 엄마의 대답에 아이들이 더 부끄러워 난리법석이다.

“졸업 후에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의 진심을 느끼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손수석 사우가 아내 정정연 씨를 향해 굴린 사랑의 볼링공이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이룬 셈이다. 게다가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남매 호진이, 유진이가까지 두었으니 세상의 어떤 스트라이크보다 높은 점수를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 남편은 스페어 처리 전담반

손수석 사우와 아내 정정연 씨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다가 2006년, 농아인협회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별다른 제한 없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어 두 사람에게 꼭 맞는 스포츠였다.

“핀이 쓰러지는 걸 볼 때마다 속이 후련해진다요? 저희는 일반인들처럼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나는 평음은 못 들지만 대신 바닥과 공기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희열을 느껴요. 스트라이크의 전율을 온몸으로 체감한답니다.”

아내 정정연 씨는 짜릿한 볼링의 매력에 푹 빠져 나날이 일취월장,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손수석 사우 역시 바쁜 업무 중에도 취미생활로 볼링을



즐기는 중이다. 요즘은 회사일, 집안일 하느라 시간을 낼 겨를이 없어 좀 뜸했지만,

“아내가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틈틈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4년 전 대만 소피아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볼링을 한동안 할 수 없었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남편의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명은 하늘에서 정하는 것,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전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아내를 다독여주었던 손수석 사우,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금메달리스트 엄마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이토록 든든한 가족이 있기에 정정연 씨는 매 경기 힘차게 볼링공을 굴릴 수 있었다.

### 모녀팀 vs 부자팀, 그 결과는?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팀 구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평범한 실력의 소유자인 아빠와 아들, 국가대표 엄마와 ‘또랑(가터)’ 마니아 딸이 한 팀을 이루는 것으로 결정. 오늘 경기에서 진 팀은 경기 후 불고기 파티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

게 된다. 매번 공이 ‘또랑’으로 빠진다면 쟁쟁대는 유진이와 오늘 경기에 굳은 의지를 보인 호진이를 보니 부부의 볼링 사랑 DNA를 아이들까지 물려받은 듯하다.

제일 먼저 라인 앞에 선 사람은 엄마다. 역시 국가대표 볼링 선수의 자세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금세 ‘다라락 쿵!’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투라이크~!” “우와! 엄마 짱!”

모두의 배를 움켜쥐게 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엄마에 이어 영성환 자세로 라인 앞에 선 유진이. 하지만 폼을 잡기도 전에 공을 ‘텅!’ 떨어뜨리고 말았다. 몸을 이리저리 꼬아 보지만 공 방향이 갑자기 바뀔 일은 없을 터, 결국 공은 제 짝과 만나지 못하고 이내 셋길로 빠져 버렸다. 망연자실한 딸아이의 표정에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다. 아이들의 깜찍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드는 사이 10프레임이 훌쩍 끝났다. 결과는 모녀팀 승! 사실 승패에 상관없이 가족 모두 오늘 쓰러트린 핀만큼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리라.

“오늘은 학원에도 안 가고 엄마, 아빠랑 볼링 치니깐 정말 좋아요! 히히”

“가족과 함께 볼링을 쳤던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는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에 한껏 들뜬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는 더 자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더불어 손수석 사우는 아내가 2017 터키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3년 후 터키에서 날아온 아내 정정연 씨의 개인전 금메달 소식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트라이크의 평음은 못 들지만 대신 바닥과 공기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희열을 느껴요!





사우들이 추천하는 양산의

## 육해공 맛집



**메뉴** 안창살, 갈비살, 등심, 낙엽살,  
치마살 그 외 특수부위, 상차림비 5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062  
**문의** 055-375-9996  
**영업시간** 10:00~22:00



최상의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무릉도원  
소토한우판매장

우리의 로망 소고기를, 그것도 최고급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경치 좋은 곳에서 맛볼 수 있다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겠다. 그런 점에서 양산 소토한우판매장을 최고급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무릉도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곳에 들어서면 조선 시대 양반의 한옥집 같은 외관에 한 번 놀라고, 저렴한 가격에 두 번, 식사를 하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에 세 번 놀라게 된다. 소토한우판매장은 한우 정육점과 식당이 합쳐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육점에서 원하는 양과 부위의 고기를 구입해 옆의 구이집으로 가서 상차림비(5천 원)을 내고 구워 먹는 식이다. 저렴하다고 고기의 품질까지 의심하지는 마시라. 대리석처럼 촘촘히 새겨진 마블링만 봐도 알 수 있다. 단체석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회식은 삼겹살 대신 한우를 추천한다.

오늘 점심, 내일 저녁 회식 땐 무얼 먹을까? 매일 가던 식당만 내리 가면서도 딱히 뽕족한 대책은 없는 사우들은 주목하시라. 알고 보면 양산 넥센타이어 본사 주변 곳곳에 땅과 바다, 하늘의 식재료를 모두 아우르는 맛집이 숨어 있다. 사우들이 직접 검증한 양산의 육해공 맛집을 소개한다.



낙지가 새우를 만났을 때  
조방낙지

일제 강점기 조선방직 앞에 있던 낙지집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조방낙지'. 많은 가게 중 양산 북정동 조방낙지는 20년 이상 된 곳으로, 원조 조방낙지를 가장 비슷하게 잘 계승해오고 있다. 부산 조방 앞까지 가지 못하는 사우들을 위한 낙지전골 맛집이랄까. 최고 인기 메뉴는 단연 낙지, 새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낙새볶음이다. 자박한 국물의 매콤달콤한 풍미가 입맛을 돋우기에 제격이다. 함께 나오는 갓 무친 부추와 먹으면 금상첨화. 맛의 비법은 양념에 있다. 마늘, 고추 등 자잘한 재료까지 국내산만을 고집하여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는데, 이 양념이 낙지의 맛을 잘 살려준다. 매운 정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정도. 저렴한 가격, 푸짐한 양, 으뜸인 맛으로 사우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맛집에 꼽혔다.



**메뉴** 낙새볶음 7천 원,  
낙지볶음 7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21-1  
**문의** 055-385-3653  
**영업시간** 11:00~22:00



참나무 장작불로 완성된 매운 갈비찜  
가마골

평범한 갈비찜은 가래! 얼큰하게 입에 착착 감기는 소갈비찜을 맛보고 싶다면 양산 북정동의 '가마골'이 답이다. 사장님이 직접 참나무 장작불에 6시간 이상 삶아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 내린다.

가마골의 갈비찜은 매운맛이 특징인데, 매운 음식이 처음엔 먹기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적응만 하면 식욕을 더욱 돋운다는 말이 딱 맞는다.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게 매운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가 만났으니 젓가락이 바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 얼큰한 갈비찜으로 배를 채웠다면 즉석에서 뽑은 시원한 막국수로 마무리해보자. 쫄쫄득득한 메밀전도 이 집만의 별미다.



**메뉴** 소갈비찜 중 3만 원, 대 4만 원,  
막국수 6천 원, 메밀전 5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898-2  
**문의** 055-362-2020 **영업시간** 10:30~22:30





**메뉴** 불짬뽕 6천 원, 나카사키짬뽕 7천 원,  
족발 소 2만 원, 중 2만 5천 원, 대 3만 원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0-1 씨티타워 120호  
**문의** 055-363-2330 **영업시간** 11:30~24:00



### 족발과 짬뽕,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신짬뽕

탕수육 친구인 줄만 알았던 짬뽕. 허나 이곳에서는 족발과 함께다. 족발만 먹었을 때의 느끼함을 짬뽕이 잡아주고, 짬뽕의 얼큰함을 족발이 감싸주니 가히 찰떡궁합이다. 낮에는 담담한 속까지 확 뚫어주는 매운 불짬뽕이 주요 메뉴. 그 맛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 말을 빌리자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냄새만 맡아도 코가 알싸할 정도라고, 나카사키짬뽕 역시 일본 도쿄 핫토리영양학교 조리학과를 졸업한 주인장의 내공이 느껴진다. 깊은 국물 맛과 푸짐한 해물, 쫄깃한 면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5시 이후에는 짬뽕과 족발의 친목 도모가 시작된다. 이 집의 족발은 인공 캐러멜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월계수, 팔각 등 다양한 한약 재료를 함께 넣고 삶아내 돼지 잡내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잡았다. 특유의 냄새와 식감 때문에 족발을 꺼리는 이들, 스트레스에 울부짖는 이들이여, 당장 이곳에 방문해 족발과 짬뽕의 신세계를 경험할지이다.



### 닭갈비의 원조, 강원도에서 왔다! 정든춘천닭갈비

강원도의 원조 닭갈비가 양산에 상륙했다. 어린 시절부터 닭갈비를 먹으며 자란 주인이 '집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를 재현한 곳이라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오픈한 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단골손님이 줄을 잇는다. 메인메뉴인 정통닭갈비를 주문해보면 왜 입소문을 탈 수밖에 없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일단 명이나물, 닭똥집 볶음 등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상차림에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기분이다. 이어 주인이 직접 철판 위에 야채보다 닭이 훨씬 많은 재료를 쏟아 붓고 윤기가 찰찰 흐를 때까지 볶아 준다. 익은 고기를 한 점 입안에 넣고 씹으니 고소하고 부드러기 이를 데 없다. 비결은 바로 닭을 비롯한 모든 재료가 국산이라는 데에 있다. 여기 닭갈비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명이나물에 닭고기를 싸먹는 것이다. 달큰한 명이나물이 부드럽고 매콤한 닭갈비를 제대로 품은 맛에 절로 "캐!" 소리가 나올 것이다.



**메뉴** 정통닭갈비 1만 원,  
숯불닭갈비 1만 원,  
메밀막국수 5천 원(비빔 6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686-3  
**문의** 055-383-1977  
**영업시간** 11:00~24:00



### 이놈은 국밥이야, 우동이야? 해양산국밥

일찌감치 인근 사나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특별한 국밥으로 정평이 난 해양산국밥. 영업 시작 시간은 오전 8시로 야간조 근무자들에게 제때 아침을 대접하기 위해서다. 해양산국밥 조성백 사장의 남다른 자부심은 괜한 것이 아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한 메뉴들 덕분이다. 이름부터 유별난 '이놈'은 그 유래 역시 기가 막히다. 해장국을 먹으러 온 손님이 "이놈이 술국이요, 해장국이요? 참 맛있네!"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놈'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 고기, 내장, 순대, 콩나물, 해초를 우러낸 육수에 청양고추, 김치, 양파 다대기와 김가루, 참깨를 뿌려 진한 풍미가 느껴진다. 맛도 좋고 양도 많아 남자 손님 2명이면, 십중팔구 이놈 한 그릇에 소주 두 병은 기본이라한다. 이에 못지않게 인기리 판매 중인 메뉴가 또 있다. 바로 가마솥에서 삶아 기름기를 짝 뺀 수육과 이놈국물에 우동면사리를 넣은 얼큰우동국밥. 특히 얼큰우동국밥에는 돼지수육과 더불어 김치, 청양고추 등이 추가로 들어가 시원하면서 고기의 감칠맛이 돈다.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이놈, 얼큰우동국밥은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마슈! ㉡



**메뉴** 이놈 1만5천 원, 저놈 1만2천 원,  
얼큰우동국밥 7천 원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907-1  
**문의** 055-366-3544  
**영업시간** 8:00~22:00



무리한 운동은 No!

# 겨울철 골절 주의보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골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절사고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겨울철 부상의 종합세트, 등산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평지에서의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누구나 사랑하는 스포츠 등산. 온몸을 사용하는 등산은 대퇴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골밀도를 높여주고 심폐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탁월하다. 그러나 눈이 오면 미끄럽고, 땅이 얼어 부상의 위험도 큰 것이 겨울 산행이다. 등산 중 발생하는 골절은 부러진 뼈가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이 많은 편인데, 외부로 노출된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하여 골수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산하는 길에 다리가 풀려 발목이 빠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이때 찬물로 다친 부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사지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혹시 산행

도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움직이지 말고 누워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봉대나 부목 등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하고 조심히 하산한 뒤 치료를 받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행에 앞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장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골절.  
운동에 앞서 간단한 스트레칭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골절,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불황일수록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속설 때문인지 올겨울에도 여전히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다. 그러나 다리를 늘씬하고 길어 보이게 해주는 미니스커트도 겨울에는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힙워머나 롱부츠, 기모 타이즈 같은 기능성 제품을 착용하지 않고 추위에 다리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골절의 위험이 커진다. 또한, 여성 질환에 걸리기도 쉽다. 흔히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이나 격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선수들에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겨울철 골절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쉬는 날 스트레스를 풀기에 제격인 사회인 야구경기 중에는 공을 힘껏 던지는 과정에서 위팔뼈에 실금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부상을 키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마라톤 또한 겨울철 골절의 복병이다. 오랜 시간 무리한 운동을 반복하면 순간적으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손상이 뼈 조직에 축적되어 치유가 까다로운 피로 골절을 야기한다. 만약 피로 골절을 진단받았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⑩



### 맨손 스트레칭

- 1 앉은 자세에서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두고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세운다.
- 2 왼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양손을 지지대로 삼고 골반을 서서히 아래로 누른 다음 15초간 유지한다. 이 동작을 좌우 3회씩 반복하면 허리 및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 의자를 이용한 스트레칭

- 1 양손으로 주변 탁자나 의자를 넓게 잡는다.
- 2 팔을 쭉 뻗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인 뒤 두 다리의 간격을 어깨보다 넓게 벌린다. 이 동작을 1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하면 어깨와 주변근육이 시원하게 풀린다.

Tip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세 살 글 버릇 여든까지

일기로 키우는  
우리 아이

## 논술실력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학원가는 논술을 배우려는  
수험생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일기만 꾸준히 써도  
논술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논리력을 키우는 일기 쓰기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아이 논술을 어떻게 지도하죠?”

논술의 필요성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대학 입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논술의 중요성이 알려지자 초등 논술을 넘어 유아 논술이라는 말까지 낱설지 않으니 가히 ‘논술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하지만 기성세대에게겐 도통 멀게만 느껴지는 논술을 아이들에게 지도하자니 낭패 그 자체이다. 뜻밖에도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부터 중요시되어 오하려 고리타분하게까지 느껴지는 ‘일기 쓰기’가 바로 그 해답.

일기 쓰기가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일기를 쓰며 그날 하루를 되새길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장력이 길러진다. 아울러 일기에 흥미를 느낀 아이들은 관찰력과 자신감이 향상된다.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논리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니! 당장에라도 아이의 손에 일기장을 쥐여 주고 싶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기계적으로 적어내는 일기로는 논리력을 키울 수 없다. 지금 우리 아이의 논리력을 쑥쑥 키워주는 일기 쓰기의 일곱 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 Tip 다양한 학습 일기에 도전!

- **신문 일기** 신문을 읽고 가장 관심 있는 기사를 주제로 일기를 쓰자. 논리를 익히기에 좋고, 상식이 풍부해진다.
- **수학·과학 일기** 복습을 통하여 원리와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생활과 연계되는 점, 풀이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자.
- **독서·영화 일기** 이야기의 마무리를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보거나,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써보자.
- **영어·한자 일기** 틀려도 좋다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자. 평소 쓰던 일기를 한 문장씩 바꿔보며 점차 늘려나가자.
- **여행 일기** 여행을 통하여 낯선 문화와 자연을 보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일기로 남겨보자.



## 글씨는 또박또박 바르게 쓰자

아무리 컴퓨터 자판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보기 좋은 손 글씨는 글쓰기의 기본! ‘ㅇ’과 ‘ㅎ’에 들어가는 동그라미의 크기와 위치만 잘 잡아도 성공이다. 그 뒤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신경 써서 글씨를 쓰면 최소한 과발개발은 막을 수 있다. 다만 너무 예쁜 글씨체를 요구하며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금물! 읽기에 무리가 없고, 글씨의 크기가 일정하면 칭찬해주자.



## 글쓰기의 재료, 어휘력을 늘리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건축 자재가 필요하듯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가 필수적이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역시 독서! 무작정 읽는 것보다 책과 교과서, 신문 등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을 찾아본 뒤, 아이와 함께 낱말공책을 만들어보자. 나중에 낱말공책을 참고하여 일기를 쓴다면, 어휘력이 장마철에 오이 자라듯이 쑥쑥 커갈 것이다.



##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주고, 책을 많이 사주고, 용돈을 충분히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보고, 운동하자. 혼자 학원에 다녀온 일은 일기에 쓰기 어렵지만, 부모와의 산책은 훌륭한 글감이 된다. 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아이에게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이타심도 키워줄 수 있다.



## 일기로 아이를 감시하지 말자

일기 내용을 빌미로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기를 쓰며

경험을 글로 바꾸는 과정은  
사고력과 문장력을 길러준다.



이는 절대 금물이다. 일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록이지 CCTV가 아니다. 일기 때문에 혼이 난 아이는 일기 쓰기에 흥미를 잃고 결국 일기를 싫어하게 된다. 일기를 통하여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알았다고 해도, 즉시 혼내지 말고 추후에 돌려 말하여 바른길로 지도해야 한다.



## 맞춤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어른 중에서도 맞춤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하물며 아이에게 완벽한 맞춤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아이가 차츰 성장하여 글쓰기에 흥미를 붙인 뒤에 가르쳐도 늦지 않으니 서두르지 말자. 너무 어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 ‘얼마나’보다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다

독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무작정 읽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어려운 책을 읽은 뒤 그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몹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앵무새도 할 수 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물어보고 아이가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주어야 논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 다 쓴 일기장을 보물처럼 간직하자

간혹 다 쓴 일기장을 폐지와 함께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 쓴 일기장은 그 자체로 아이의 역사이자 소중한 기록이다. 일기장을 1~2년 단위로 묶어 소중하게 보관해두면, 아이는 일기장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글에 대한 긍지도 갖게 된다. 모아둔 일기장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날 수록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 되어줄 것이다.⑩



# 눈 위에서 바람을 느끼다

## 산타 마을 로바니에미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산타를 떠올린다. 입으로는 산타가 없다고 말하는 어른도 내심 그의 존재를 믿고 싶어 터, 잠들어있는 동심을 깨워줄 산타의 나라 핀란드로 당신을 초대한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차로 1시간가량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나오는 도시 로바니에미. 흰 눈으로 가득 찬 핀란드의 도로는 한국과 달리 영하 25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한다. 나는 갓 내린 뽕송뽕송한 눈 위를 달리며 설렘 가득한 여행의 하루를 시작했다.

‘산타 마을’로 불리는 로바니에미에서는 하얀 얼굴에 빨간 모자를 쓴 요정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주로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차곡차곡 정리해 산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요정의 안내를 받아 산타의 집무실로 이동했다. 산타를 구경하려는 아이들 틈에 섞여 차례를 기다린 뒤 들어간 집무실에는 거대한 체구의 산타가 무릎까지 오는 수염을 매만지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가 산타라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에 압도되어 마치 오래전부터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듯이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다만 산타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2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지만 말이다.



핀란드의 눈 쌓인 숲을 가로질러 다시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가던 도중 흥미로운 표지판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무스 주의’라는 뜻이었다. 핀란드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 자동차 사고 뉴스는 보기 드문 일이지만, 대신 동물과의 충돌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동차가 순록과 부딪히면 순록이 죽는 반면에 덩치가 큰 무스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많아 무스가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꼭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자연을 품고 사는 핀란드에 동물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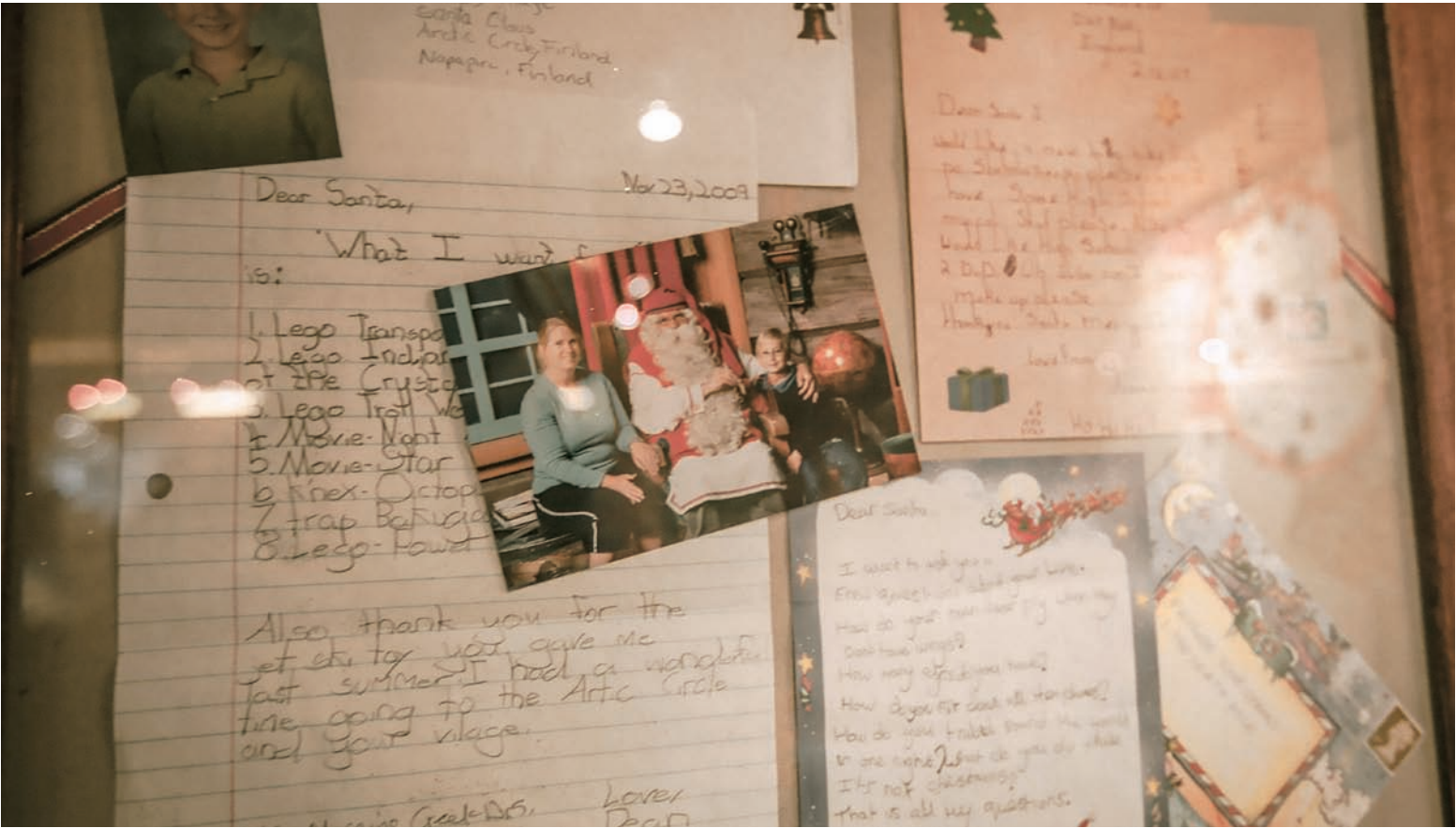
#### Profile

대한민국 1세대 HDR 사진작가. 핀란드, 그리스 산토리니, 우간다, 스위스,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디지털에 담고 있다. 그간의 여행기는 그의 블로그(hdrphotographer.co.kr)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눈의 나라에 왔으니 겨울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스노우모바일과 허스키 썰매를 즐기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스노우모바일을 타기 전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요원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뒤 2인1조로 팀을 나눠 스노우모바일에 올라탔다. 난생처음 눈길 위를 달려볼 생각에 심장은 두근두근. 막상 타보니 수상스키를 타는 기분과 비슷하다. 자전거나 스쿠터처럼 작동법이 쉽고 눈이 많은 나라이니만큼 길이 아닌 곳으로 달리다가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스포츠라고 하니 핀란드에 간다면 체험해봐도 좋겠다.

핀란드 여행의 메인, 순록을 타는 일은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순록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이는 방울 소리가 청각적인 정취를 더해주고, 듽직한 그의 등에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풍경은 카메라만으로 부족했던 핀란드 경치를 두 눈에 담기 충분하다.

차가운 바람을 벗 삼아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새하얀 눈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핀란드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피터팬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살면 평생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동화같은 곳을 여행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아이로 돌아가는 듯하다. 산타와 요정, 그리고 자연이 있는 로바니에미. 눈 내리는 겨울이면 이곳이 그리워질 것 같다.📷



인자하게 웃는 산타를 본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듯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 헬릭스

## 압연공정

스틸벨트는 타이어의 접지력 및 내구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품 중 하나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압연공정(Creel Room)은 첨단 자동화 공정으로 스틸코드를 직조해 점착력 강화 및 균일성을  
확보한 최고의 스틸벨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팀 2013 워크숍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가는 사우들이 1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팀원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확인하고, 교육을 통해 고객을 향한 사랑까지  
 새하얗게 불태웠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고객만족팀 사우들이 천안 상록리조트로 하나들 모여들었다. 대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월 1회 권역회의를 열긴 하지만 이렇게 팀 전원이 모이기는 정말 오랜만이다. 흰 눈이 소복이 쌓여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의 리조트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가상의 고객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달라는 취재진의 무리한(?) 요구에도 개의치 않고 도리어 본인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시커먼 사나이들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충알을 쏘아대고, 듣도 보도 못한 신종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하얀 눈밭 위에 반가움과 설렘이 깨알같이 흩뿌러지는 듯하다.

“워낙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처럼 모인 만큼 뜻 깊게 보내고 싶네요. 팀워크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만족팀의 수장인 김한기 팀장은 기분 좋은 얼굴로 이번 워크숍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팀원들 역시 친목 도모와 더불어 의미 있는 교육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이라며 연신 즐거운 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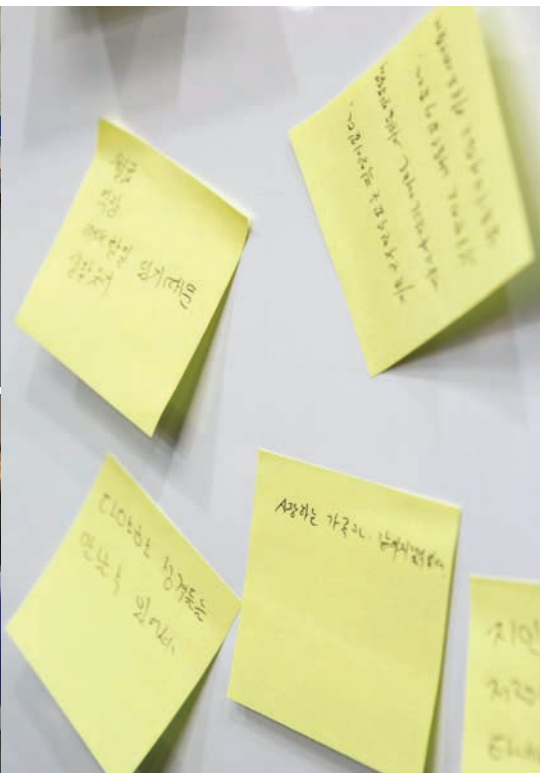
### 넥센타이어의 최전선, 이상 무!

‘고객서비스’라고 하면 흔히들 A/S 업무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고객만족팀의 다양한 업무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내·외부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는 크게 해피콜, 모바일, C/S(Customer Satisfaction), 본부 지원으로 나뉜다.

해피콜은 실시간 고객 클레임을 접수해 24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A/S 지정점으로







## 우리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

이번 워크숍 교육은 클레임 응대와 서비스 매뉴얼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홍상 이사의 벡센타이어 비전에 관한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사우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본격적인 1일 차 교육은 ‘고객 클레임 제로화’ 테마로, 첫 시간에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비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행복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들 간 소통을 통해 내부 만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는 고객만족팀의 철학이 묻어나는 교육과정이었다. 실제 교육 분위기 역시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서 활발한 대화가 오갔다. 사우들 각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는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블랙컨슈머의 대응방안과 클레임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2일 차에는 타이어 및 장비 사용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저희는 ‘벡센타이어의 얼굴’입니다. 회사 대표로서 고객을 만나는데, 당연히 타이어에 관해 모르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한기 팀장의 말처럼 이번 워크숍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다. 업무의 맥락을 이해해야 비로소 진정한 고객만족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고객이 100%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객만족팀. 그들에게 자사 브랜드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일이다. 벡센타이어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고자 하는 고객만족팀의 행복한 열정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㉞

연계한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인 모바일 활동은 쉽게 말하자면 ‘찾아가는 타이어 점검 서비스’다. 대리점, 자동차 검사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무상으로 타이어를 점검한다. 클레임 사전 예방과 동시에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장기적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 서비스의 핵심은 C/S 업무다. 각 권역의 C/S 실장들은 클레임이 접수되면 요청 장소에 방문한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인지라 자주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 유형을 롤플레이로 연출해 고객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벡센타이어의 고객서비스는 타사에 비해 세심하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물론 쓴소리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료와 서비스로 상담해드려도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는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벡센타이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체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만족시켜 드리려 노력하지요. 그래서인지 타사 서비스와 비교해보곤 매우 흡족해하세요.”

이들이 체계적인 서비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 본부 스태프의 덕이 크다. 팀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이다. 고객만족팀의 업무일지를 체크하고, 공유하며, 타이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소에 전달하는 것 또한 이들의 중요한 임무다. 벡센타이어의 최전선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고객만족팀은 벡센타이어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만족팀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벡센타이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고객만족팀 워크숍 소감 한마디

- **성남지구 김태형 사원**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고충을 나누다 보니 힐링의 자리가 되었다.
- **인천지구 정태문 과장**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틀이었지만 회사의 미래와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일산지구 변상식 사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속감이 고취된 것 같다.
- **전주지구 김상덕 대리**  
2014년에는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고객만족팀 파이팅!
- **울산지구 제대상 과장**  
전문 C/S 교육과 자체 발표를 통해 개인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 **대구지구 박태경 사원**  
초심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으며, 조별 발표 때는 각자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익했다.
- **동부산지구 유민 사원**  
다시 한 번 벡센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 워크숍에서 충전한 에너지로 필드에서 고객만족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
- **서울모바일 정태배 과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회포도 풀고, 유익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다.
- **부산모바일 정현근 대리**  
C/S 관련 업무에 대한 감이 떨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다.
- **본사 스태프 김정국 과장**  
필드 실장의 고충 및 의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향후에는 이런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팀이 되었으면 한다.
- **본사 스태프 이규채 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사색의 기회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산 · 품질팀 대리들의 크로스 회식

##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

생산팀, 품질팀의 대리 4명이 젊음의 거리 부산 남포동에서 뭉쳤다.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들의 신나는 한 때를 따라가 봤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만큼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다들 동시에 관리직으로 전환되면서 동기애를 느끼고,  
업무적 고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외출

부서 간 교류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 문화를 만들고자 ‘크로스 회식’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런 취지에 맞는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바로 정련파트 문형섭 · UHP파트 정내운 · 가류파트 김형진 · 품질검사파트 최인철 대리. 감사하게도 모두가 사보 출연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이번 특별한 나들이에 동참하게 됐다. 젊음의 거리 부산 남포동에서 만나 따뜻한 차로 몸도 녹이고, 트릭아미미술관도 관람하기로 한 것.

남포동에서 모인 이들은 다들 한껏 신이 난 표정으로 “젊었을 땐 자주 왔었는데 오랜만에 방문하니 새롭다”며 입을 모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타 부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니? 마주 앉아 농담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오래된 친구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친해 보이기까지 한다.

“저희는 벡센타이어에 평균 20년 정도 몸담아 온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만큼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다들 동시에 관리직으로 전환되면서 ‘동기애’를 느꼈다고 해야 하나요? 남모를 고충이나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지요.”

그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었을 리 만무했다. 거친 풍파를 함께 겪으며 동병상련의 정(情)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 파트는 다르지만 마음만은 하나

타이어 하나가 완성되는 전 공정에 골고루 포진해있는 이들의 소속은 정련, UHP, 가류, 품질검사로 모두 다르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제법 있다. 마침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다며 가류파트 김형진 대리가 운을 뗐다.

“가류파트와 품질검사파트는 서로 견제하는 팀입니다. 이전 공정을 비롯 가류파트에서 피땀 흘려 완성한 타이어



를 품질검사파트에 전달하면 어쩔 그렇게 죽집게처럼 불량을 잡아내는지!  
품질검사파트에선 해야 할 일을 한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하하! 억울하면 완벽한 제품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품질검사파트 최인철 대리의 위트 있는 한마디 덕분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한 점도 많지만 네 사람은 각 파트의 현실을 면면이 알고 있는 바,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는 인상도 쓰고 서운한 말도 하지만 결국 다시 뭉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속이 달라도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 해결 지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요.”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들의 대화에서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고 고마워하는지,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더욱더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우들은 이미 넥센타이어라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처럼 보였다.



### 오감자극 유쾌한 전시회로 다 함께 하하하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수다 삼매경에 빠졌더니 벌써 미술관으로 향할 시간이다. 네 사람이 나들이 장소로 정한 ‘트릭아이미술관’은 조용히 눈으로만 작품을 감상하는 어느 미술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술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 소탈하고 유쾌한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제격인 곳이다.

미술관에 입장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사우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일행 맨 뒤를 따르던 문형섭 대리의 눈에 틀만 있고 그림은 없는 액자가 들어왔다. 그가 액자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그림의 주인공이 된 순간 생동감 넘치는 자화상이 되었다. 조금은 점잖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고, 이에 질세라 정내운 대리가 소림사 그림 앞에서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저 소림사 출신 같지 않나요?” “리얼한데? 진짜 연기해도 되겠습니다! 와하하”

그림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동료들이 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한 정 대리는 이내 사진을 확인하고 허리가 젓혀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코믹과 불쌍함을 넘나드는 탁월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문배우’와 ‘정배우’의 열연에 어느새 미술관은 폭소 만발이다. 레드카펫 위에서 영화배우인 양 품도 잡고, 팬더가 되어 대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체험도 끝이 났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업무관련 대화도 나누고, 웃고 떠들다 보니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느낌입니다!



“가족과 함께 왔을 땐 아이들 사진 찍어주느라 바빴는데, 오늘은 우리도 신나게 즐겼네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니까 참 좋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뭉치고, 다들 열심히 일하자고요.”

최근 양산공장에는 자동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점차 업그레이드되어가는 자동화 시스템에 맞추어 작업자들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별 보고 출근해 별 보며 퇴근하는 일 또한 잦아졌다. 함께 모여 식사 한 번 같이 하기가 어려웠기에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네 사람. 오늘의 특별한 나들이를 통해 한마음으로 일하는 서로의 신뢰와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길 바란다. ㉞





신입사원 연탄 봉사 활동

## 불씨만큼 뜨거운 사랑을 전하다



아직도 다수의 가구가 연탄불을 때고 있는 마을,  
양산 동면 개곡리. 예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추위에 이곳의 풍경은 가슴이 먹먹하리만치 춥고  
쓸쓸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어느 곳보다  
훈훈해질 예정이다. 봉사에 뜻이 있는 7명의 넥센  
신입사원들이 연탄 불씨만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왔기 때문이다.

### 보송보송 뜨거운 마음들이 뒹다!

황금 같은 주말 아침, 양산의 개곡정로당 앞으로  
상큼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RE개발1팀 변길재, RE개발2팀 고을규,  
품질경영팀 천명재, 회계팀 신영완, 물류기획팀 이수진,  
글로벌 생산지원팀 김정호, 제품평가팀 권하석 사우까지.  
이들은 모두 2013년에 입사한 동기들이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연탄나눔.  
“야아 얼마 만에 보는 연탄이고?”  
“니는 연탄구멍이 몇 개인 줄 아나?”  
어쩌면 어떤 이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것일 연탄.  
이곳 양산의 동면 개곡리에 있는 가구 다수는  
아직도 연탄불을 때고 있다.  
한때 기름보일러로 바꾼 집도 있지만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다시 연탄을 땔 수밖에 없었다고.



할머니,  
이번 겨울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오늘 사우들은 난방비를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 댁에  
총 300장의 연탄을 선물하기로 했다.  
“할머니이~ 창고에 연탄 두둑하게 쌓아드릴게요!”  
“추운데 고생이 많네. 너무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 댁의 창고로 제일 먼저 들어가려던 사우가  
차마 들어가진 못하고 입구에서 멈칫 선다.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폭에 덜컥 겁이 났던 걸까.  
꽤나 험난한 코스가 되겠구나 싶은 걱정도 잠시,  
사우들은 금세 인간 컨베이어 벨트라도 된 양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일사불란하게 연탄들이 옮겨진다.  
투수가 좋아야 포수가 좋은 법,  
기특하게도 모든 사우가 실투율 제로다.



빨갳던 장갑은 새까매지고,  
얼굴도 거뭇거뭇해졌지만  
마음만은 더 환해졌다.



어느새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열기가

창고 가득 연탄이 채워졌다.  
이것으로 할머니는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결리던 옆구리도 다 나은 것 같다.  
빨갳던 장갑은 새까매지고, 얼굴도 거뭇거뭇해졌지만  
마음만은 더 환해졌다.  
연탄봉사는 처음이라 서툴고 고단했지만  
그 어떤 일보다 보람을 느꼈다는 사우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해 무척이나 아쉽다며  
동기들을 모두 동원해 다음 봉사에 나오겠다는  
이들의 미소가 그렇게 밝아 보일 수 없었다.  
소외된 이웃에 연탄, 아니 뜨거운 사랑을 전한  
이들이 있어 아직 뜨끈뜨끈 살맛 나는 세상이다.🇳🇵



쿵짝쿵짝  
노동요에 맞춰 연탄 날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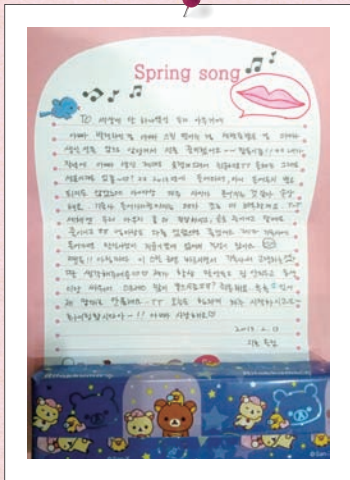
벌써 1시간 이상 연탄을 나르는 중이다.  
추운 줄도, 땀이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자칫 부서질까, 깨질까 연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질 지경인데  
연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남았노?” “10장 남았네. 이제 다했다!”  
(10분 뒤) “진짜 몇 장 남았는데?” “10장 남았다니까.”  
맨 앞에서 연탄을 전달하는 사우는  
행여나 동기들이 지칠까, 하얀 거짓말에 재미가 들렸다.  
10장이 남았다 한들 어땡고, 100장이 남았다 한들 어떨쏘냐.  
“영완이가 랩을 한다~ 흥흥흥~🎵”  
누군가의 입에서 노동요가 흘러나오자  
쿵짝쿵짝 리듬을 타며 손발이 절로 움직인다.  
곱디고운 홍일점, 이수진 사우도 오늘만큼은 부지런한 일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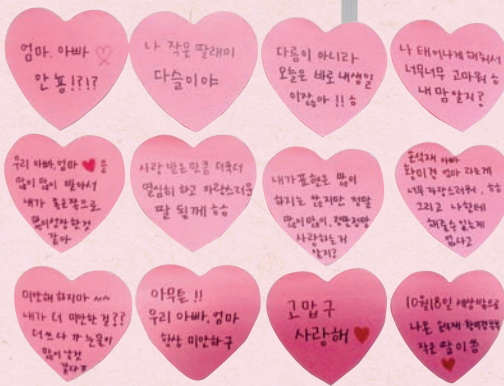
내게 힘이 되는 우리 아이

# Love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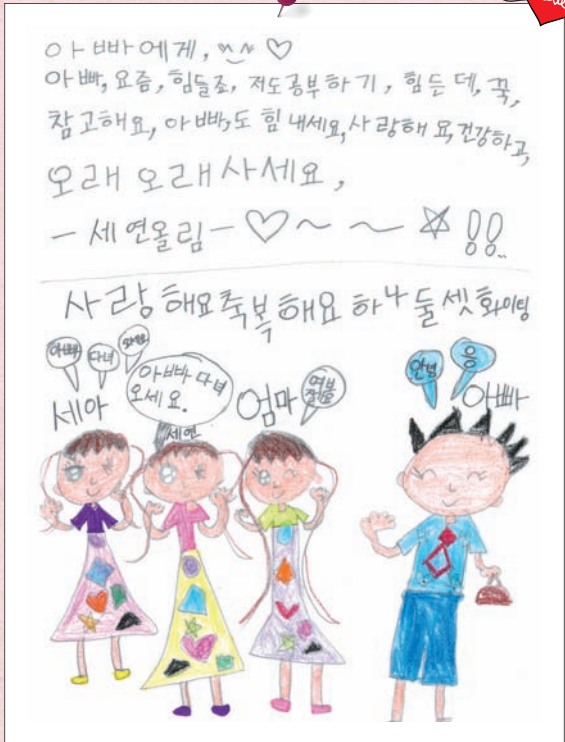
발렌타인데이  
고백받았어요

발렌타인데이 겸 생일 선물과  
함께 큰딸 지호가 쥐여준  
편지입니다. 선물은 스킨과  
로션이었는데 아까워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기념일 때마다  
정성 가득한 편지를 써주는 딸들  
덕분에 항상 힘이 납니다  
일산지점 김태유 지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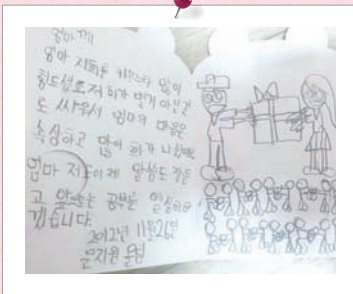
♡ 하트 메시지는 감동을 싣고

우리 작은딸이 제 생일에 메시지를 남겼네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편지를 보는 순간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왔답니다.  
생산팀 가류파트 손석재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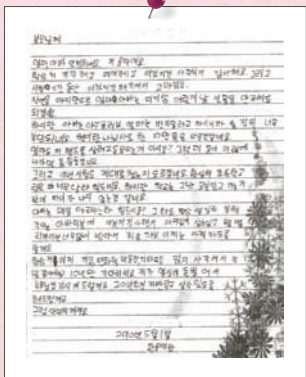
♡ 아이의 그림편지는 나의 부채!

세연이는 평소 그림편지를 자주 보내주곤 합니다. 부채 삼아 갖고  
다니다 보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지점 박민호 사주



♡ 딸 편지 덕분에 울다가 웃다가

제 둘째 딸 지원은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취미입니다. 작년 아내의 생일 즈음 첫째  
채원아와 크게 다투어 속상하게 하더니  
저렇게 편지를 써 눈물짓게 하더라고요.  
정련파트 문형섭 대리



호강시켜준다고?  
그 말을 믿어, 말어?

지금은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 윤재.  
중학생 되던 해 학교에서 숙제로  
쓴듯한 어버이날 편지를 내밀더군요.  
감사 반, 불만 반. 마지막 부분에  
호강시켜준다는 위로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  
전략기획팀 황익진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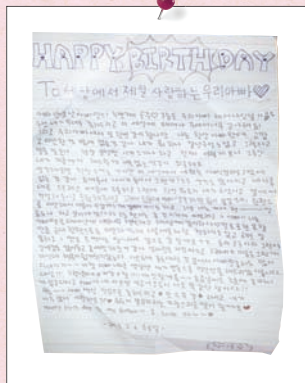
세상 효자, 효녀들은 다 모아놔네그러~

우리 아이들 사랑의 메시지에 불끈 불끈 힘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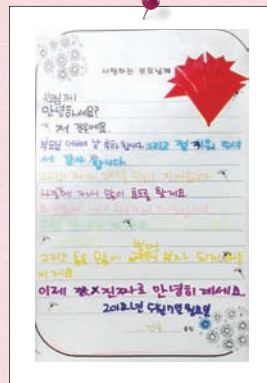
♡ 들어는 봤나 뽀뽀쿠폰!

초등학교 2학년 큰아들 동현이가 지난해 어버이날에 뽀뽀쿠폰을  
주더군요. 오랜 여운이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둘째 민승이는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만들어 줬는데, 두 녀석 덕분에 2013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생산기술팀 김상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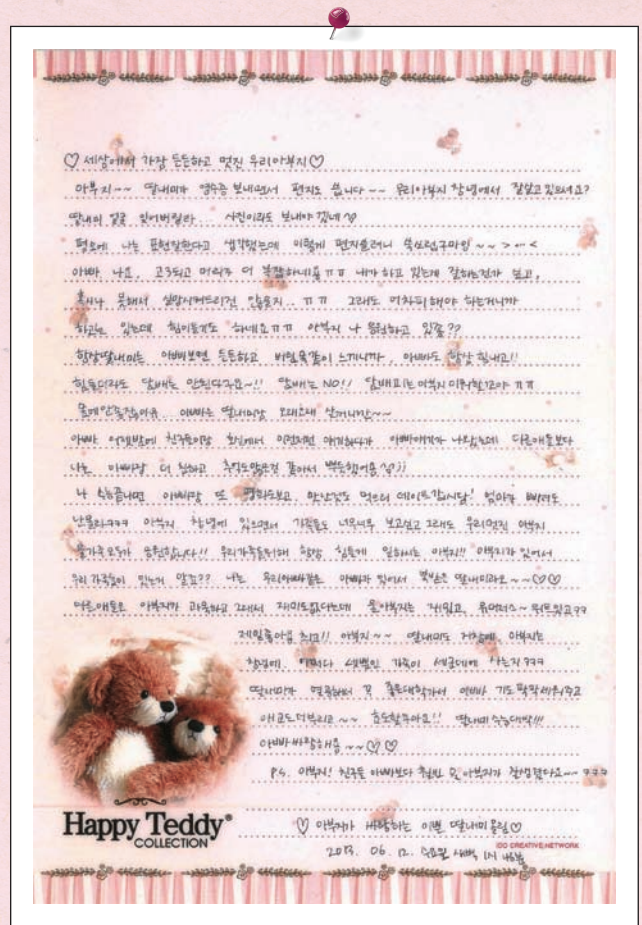
♡ 고3 수험생 따님, 성인이 망극하옵니다

올해 제 생일에 딸 윤주가 준 축하편지입니다.  
고3 수험생인 딸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며 편지를  
써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물류관리팀 이상명 팀장



♡ 아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

아직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아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며, 커서 외국도 보내주고 부자도 되게  
해준다니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래서 다들 자식 바보가 되나 봅니다.  
영업팀 이현구 대리



♡ 세 집 살림의 비애, 딸의 편지로 극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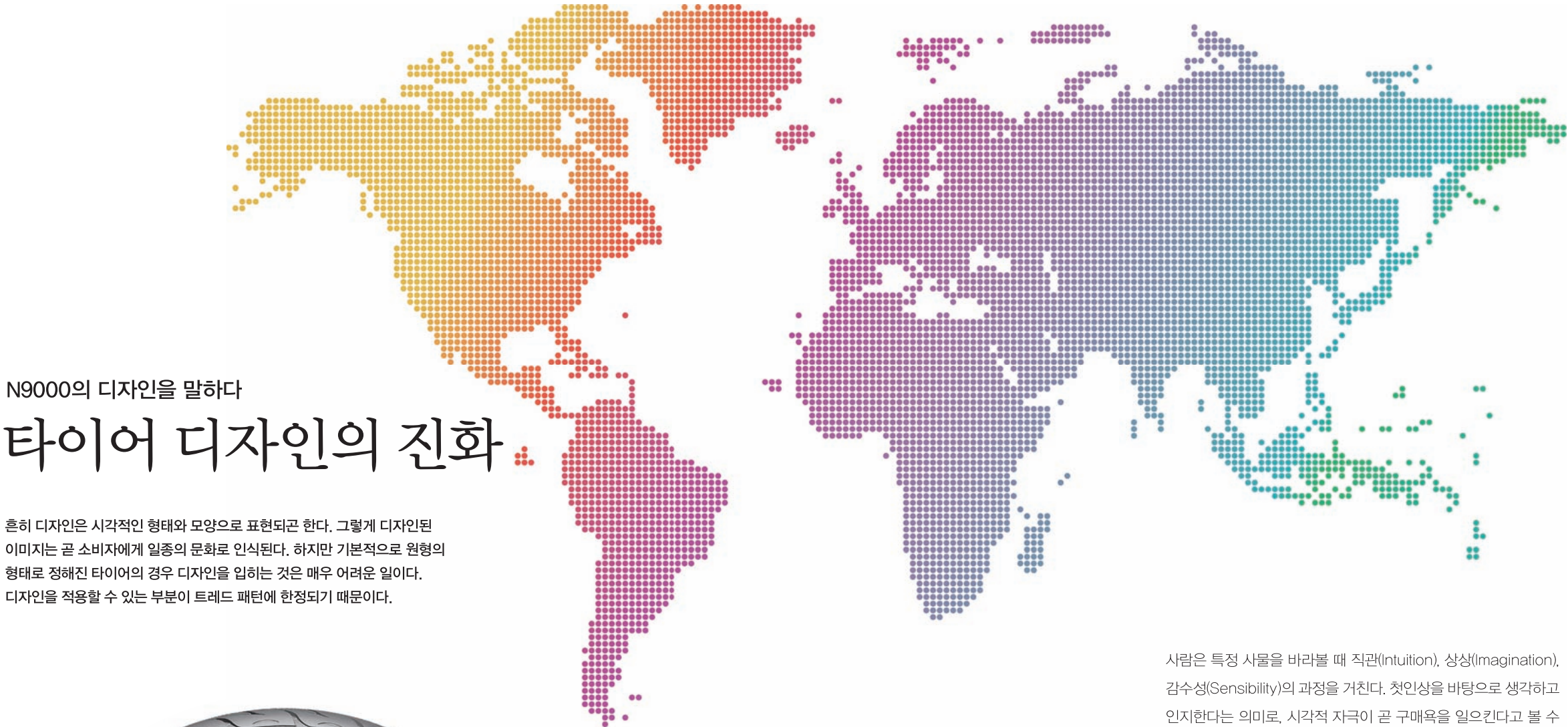
집은 양산인데 거창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딸이 준 편지예요. 이후 제가 창영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바람에 창영, 거창, 양산에 세 집 살림을 하고 있네요. ㅋㅋ  
(창)정련파트 김수복 직장



♡ 타지에서 홀로 버틸 수 있었던 힘

2010년 중국T/C에서 홀로 근무할 때 큰딸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당시 타지에서 홀로 힘겨웠던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럽T/C 오영렬 차장





N9000의 디자인을 말하다

# 타이어 디자인의 진화

흔히 디자인은 시각적인 형태와 모양으로 표현되곤 한다. 그렇게 디자인된 이미지는 곧 소비자에게 일종의 문화로 인식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정해진 타이어의 경우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트레드 패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특정 사물을 바라볼 때 직관(Intuition), 상상(Imagination), 감수성(Sensibility)의 과정을 거친다. 첫인상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인지한다는 의미로, 시각적 자극이 곧 구매욕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업계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하지만 디자인은 기능을 외면할 수 없다. 자동차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경우 모양은 달라도 냉각을 위한 통풍 역할은 동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타이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빠른 회전에 유리한 형태인 원형을 벗어나기는 곤란하다. 바퀴는 원형일 때 기능이 최적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접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이드 월을 피스톤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첨단 장치를 넣을 수도 있다.

물론 범위를 좁히면 트레드 패턴의 무늬도 디자인 대상에 포함된다. 표면에 새기는 무늬에 따라 기능 향상은 물론 시각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심지어 트레드 패턴에 나름의 철학을 담아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넥센타이어 N9000이다. N9000은 스타일과 성능을 중시하는 ‘스트리트 레이서(Street Racer)’를 위한 스

*N9000은 심미성과 주행감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츠 타이어로 디자인됐다. ‘Z’자 형상 패턴으로 시각적 자극을 일으킴과 동시에 노면을 움켜쥐는 밀착력 또한 향상됐다. 덕분에 고속 주행에도 정확한 핸들링과 조종 안정성을 발휘한다. Z 형상의 횡 그루브는 노면의 고인 물을 타이어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에 탁월하다. 나아가 좌우 숄더 블록을 넓게 설계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혔다.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을 갖기 위함이다.

넥센타이어 트레드 패턴 디자인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해 10월 독일 디자인협회 심사에서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고, 그에 앞서 일본에선 ‘굿 디자인’, 유럽에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 특히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홈 인테리어, 라이프 스타일, 작업 공간, 운송 등 10개 부문 1,900여 점의 출품작 가운데 운송 부문 특별상을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앞서 받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Mark)’는 1957년 제정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지난해 794개 업체, 3,400점의 산업 제품이 경쟁한 결과 넥센타이어 N9000이 국내 업계 최초로 본상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2012)’ 수상을 포함하면 타이어 표면 무늬 형상으로만 ‘글로벌 3대 산업디자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셈이다. 이처럼 타이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능 때문이다. 패턴 디자인이 가속과 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노면과 마찰이 일어날 때 소음까지 억제시킨다. 제대로 디자인되지 못한 타이어는 운전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선택 또한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디자인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 확장성이다. 이를 위해선 제품 및 멀티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추구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제품 확장은 새로운 형태, 규격, 성분 등이 추가되는 기본 과정이다. 브랜드 확장은 필요한 제품이 기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넥센타이어 N9000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제품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고성능을 즐기는 이들의 시각과 주행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외 유명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의 눈에도 N9000이 특별해 보였던 이유가 아닐까 한다.<sup>10)</sup>



##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 타이어테크 송파점 明傾費結

넥세니가 소개하는 타이어테크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 방문한 매장은 깔끔한 환경과 철저한 정보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타이어테크 송파점이다.

우리 동네 한가운데에  
이렇게 크고 깔끔한 매장이  
생겼다니. 가봐야겠군!



## 매장 안



송파구 송파동 방이사거리에 위치한 타이어테크 송파점.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매장이라 깔끔하다.  
요지에 입점해있어 고객들의 방문이 편리하다.



손님!

어서오세요.  
송파점입니다.

우와,  
카센터야 전시장이야?  
완전 깔끔하잖아! 게다가 다른  
타이어매장과는 다르게 정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더니.  
정말 든든한데?



쉴 줄 아



## 꽃보다 직원

사장  
신직수

안녕하세요.  
타이어테크 송파점 사장 신직수  
입니다. 현재 송파점을 비롯해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지  
하루하루가 알차고 재미있네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들을 모시겠습니다.

점장  
김상엽

안녕하세요.  
김상엽 점장입니다. 사장님과  
함께 타이어 교환, 자동차 정비를  
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언제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동차를  
믿고 맡겨주세요~!

## 타이어테크 송파점 7계명

명 : 명랑하게 인사하기  
경 : 경청하기  
비 : 비용 설명하기  
결 : 결과 설명하기  
작 : 작동 확인하기  
플 : 플러스 서비스하기  
인 : 인사로 고객 배웅하기



수리 중



사장님과 점장님 모두 정식 자동차정비자격증을 가진 실력자라니. 더욱 신뢰가 가는걸?



분위기까지 화목해. 이런 매장이려면 매일 오고 싶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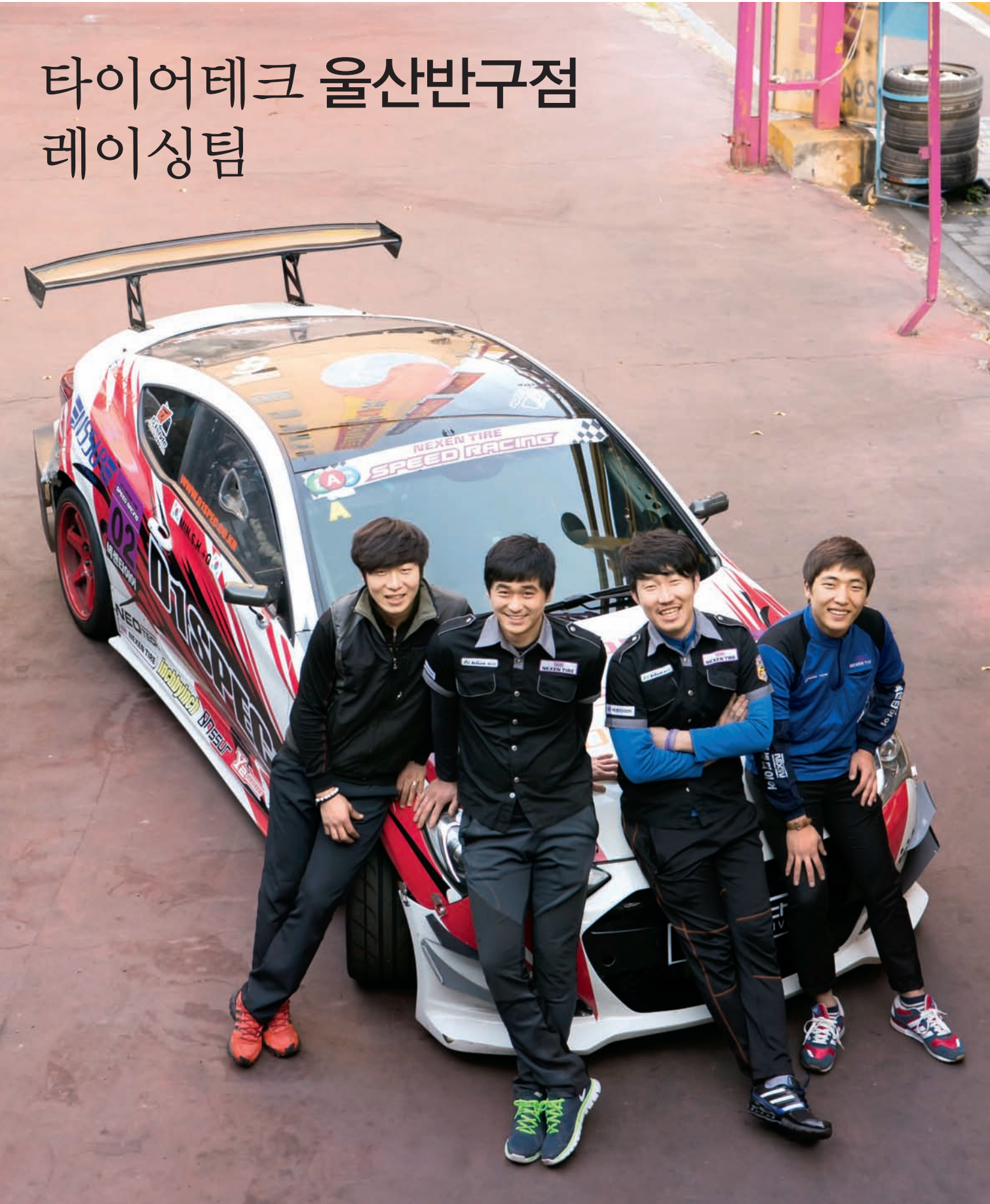
그.리.고.



수리 끝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 직원들은 레이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



타이어대리점 직원들이 레이싱팀으로 변신해 화제다.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이 2013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1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최종전까지 출전한 것. 아쉽게도 가장 최근 경기였던 5라운드에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차가 망가져 경기를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이 품은 열정만큼은 그 어느 팀보다 뜨겁다.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 레이싱팀을 이끌고 있는 이는 박상현 사장과 박주영 점장. 이미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경험이 있는 베테랑 레이서들이다. 친구였던 두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20대 중반부터 레이싱 대회에 함께 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2년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을 오픈하면서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대회 자체에 호감을 갖게 됐다.

“저희 대리점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마침 직원들 대부분이 레이싱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초에 구성된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 레이싱팀의 구성원은 박상현 사장, 박주영 점장, 김상민·이해우 사주. 이들은 각자 레이서와 미케닉 역할을 맡아 제 몫을 너끈히 해내고 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꽤 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차량을 정비하느라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이어 업계 종사하는 덕분에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넥센타이어를 자유롭게 장착하고 주행할 수 있어 개인 참가자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직접 사용해보았으니 고객들에게 좋은 타이어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도 있다.

“실제 주행해보니 N9000이 가격 대비 그림력이 무척이나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넥센타이어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장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넥센타이어 직원으로서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타이어를 추천하고, 레이서로서는 기록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는 타이어테크 울산반구점 가족들. 함께 일하며 레이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지금 모습이 오래도록 영원하길 바란다.<sup>㉮</sup>





새로운 다짐, 새로운 모습으로

# 세마쇼의 주인공이 되다



넥센타이어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이어 지난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 베가스에서 열린 SEMA SHOW(이하 세마쇼)에 참가했다. 세마쇼는 총 100여 개국 100,000명 규모의 바이어 및 관람객이 방문하는 북미 최대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전시회다. 넥센타이어는 전신인 우성타이어 시절부터 세마쇼에 꾸준히 참가하여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번 세마쇼에서 넥센타이어는 새로운 부스(Booth) 디자인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새단장한 부스는 상단에 원형 사인(Sign)을 설치하여 주목성을 높이고, 흰색과 넥센의 C 컬러인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기존 부스에 비해 깔끔하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복층 구조의 부스 1층에는 신제품, OE 제품, UHP&HP, Winter, SUV&LTR로 5개 존(Zone)으로 구분하여 총 28개 제품을 전시했다. 11개 신제품과 8개의 OE 제품을 전면 배치하여 고객들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북미, 중남미를 비롯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넥센타이어의 N3000이 장착된 람보르기니, Roadian HP가 장착된 Jeep의 Cherokee 역시 관람객의 주목을 끌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과 미팅을 위해 마련한 2층의 회의실에서도 전시기간 내 매우 열띤 회의가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한편 전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타이어, 주유권을 제공하는 행사인 Lucky Draw는 엄청난 인원이 몰려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였다. 넥센타이어는 또 한 번의 세마쇼를 통해 미국시장에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㉞





## 고충처리위원회 사랑의 집짓기

지난해 12월 13일 넥센타이어 고충처리센터 위원 15명이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팔미마을에서 진행된 한국번개건축(Korea Blitz Build)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했다. 사랑의 집짓기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을 돕는 봉사활동이다. 고충처리센터 위원들은 매일 양산노인실비요양원에서 노인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는 연말을 맞아 워크숍 일정과 더불어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는 단순 기부의 형식적인 사회 공헌이 아

닌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고충처리센터 위원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벽면 마감 작업, 발코니 석고보드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김재돈 노사협력팀장은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 넥센타이어의 위상을 높이고 고충처리위원들의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봉사 소감을 밝혔다.



## NEXEN 영업혁신 Kick-Off 진행



넥센타이어가 지난 10월 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NEXEN 영업혁신 Kick-Off'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사 비전 달성을 위한 영업 부문 혁신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및 정신력 강화 등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다. 전사 임원 및 서울사무소 전 직원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영업혁신 Kick-Off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비롯해 각 영업 부문의 마케팅 혁신 전략을 전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대구시 & 대경자동차부품 진흥재단과 MOU 체결



넥센타이어는 지난 10월 24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시와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과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의 성공적인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장비 및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중앙정부 R&D(기술연구) 공동 수행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9만 4,545㎡ 부지에 975억 원이 투입된 ITS 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은 지난해 11월 완공되었으며, 다가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협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주행시험장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마곡산업단지에 ‘넥센 중앙연구소’ 설립 발표

넥센타이어가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넥센 중앙연구소를 설립한다. 넥센타이어는 마곡일반산업단지의 BIT클러스터 일반분양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기술 강화와 첨단 타이어 설계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시설을 짓게 되었다.

연구시설은 종합연구시험 센터인 성능연구센터와 재료연구센터, 그리고 제품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센터로 구성된다. 대지면적 17,105㎡에 총 1,656억 원을 투자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넥센 중앙연구소는 경남 양산의 기술연구소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기술연구소, 미국 오하이오주 아크론의 미국기술연구소, 중국 칭다오의 중국기술연구소 등 국내외 4곳의 기술연구소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이승주 사무국장 국가품질유공자상 수상

지난 11월 28일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넥센타이어 이승주 공장혁신사무국장이 국무총리 표창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 업체를 발굴해 산업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품질경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회다. 수상 기업은 한국산업표준에 의거, KS 심사 시 제품심사 및 서류심사 일부 항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수상자인 이승주 공장혁신사무국장은 "명장이 명품을 만드는 글로벌 Top 수준의 사업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넥센타이어의 높은 품질경영 수준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마케팅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손동언 이사 산업포장 수상



지난 12월 24일 넥센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손동언 이사가 '2013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 포장을 수상했다.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손동언 이사는 외국에서 국내 U턴을 통한 이례적인 국내 대규모 투자로 지역 고용을 선도한 부분과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청년고용 창출에 힘쓴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동언 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에 힘쓰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2013 제안활동 연말 총결산

2013년 한 해 진행된 제안활동을 총결산하는 시상식이 지난 12월 24일 TPM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활동 부서는 생산2팀의 가류파트, 우수상을 받은 부서는 생산1팀의 정련파트로 그 외 품질팀 품질검사파트와 공무팀 설비보전파트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PCR 파트의 양규상 직장은 올해도 82회의 제안을 내며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총 27억여 원의 경제효과까지 가져오며 2013년 제안왕을 수상하

는 영광을 안았다. 제안 마일리지 제도에서는 품질팀 품질검사파트의 박창현 사수가 1,000 마일리지를 달성, 생산1팀 정련파트 김순아 직장이 500 마일리지를 달성했으며 TOP 진단 우수부서로는 재료, 가류, 원동, UHP, 품질검사파트 총 다섯 개 부서가 선정되었다. 공장혁신사무국은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장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獨 폭스바겐그룹에 신차타이어(OE) 공급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신차타이어(OE) 시장에서 연이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독일 폭스바겐그룹 베스트셀링 차종 '폴로'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OE)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독일 폭스바겐그룹 산하 스코다의 '옥타비아'와 '라피드' 차량에도 타이어를 공급한다. 모두 유럽시장 판매용 차량이며,

장착되는 제품은 N'Blue(엔블루) HD다. N'Blue HD는 뛰어난 조정 안정성을 가진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로 연비 효율이 높아 현재 유럽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신차타이어 공급으로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넥센타이어, 독일프로축구팀 'VfL 볼프스부르크'와 스폰서 계약 체결

넥센타이어가 독일 프로축구팀 VfL 볼프스부르크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VfL 볼프스부르크는 독일 분데스리가 1부에 소속된 프로축구팀으로,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를 연고지로 하여 1945년에 창단되었다. 2008-09시즌에는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 구자철 선수가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스폰서 계약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2013-14 하프 시즌 동안 홈구장(폭스바겐 아레나)의 총 길이 240m의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을 비롯한 경기장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식 후원사로 노출되며, 선수단 사진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도 후원하고 있다.



## 유럽 드리프트 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



넥센타이어의 '팀 넥센(Team Nexen Tire Europe)' 소속 Juha Rintanen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2013 드리프트 올스타즈 유럽피인 시리즈(2013 Drift Allstars European Series)'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자동차 레이싱의 꽃으로 불리는 드리프트 경기는 기존 F1 경기나 나스카 경기와 달리 경주차량이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박진감 넘치게 질주하는 자동차 경주다. 특히 타이어의 극한 한계를 보여주어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12개 국가에서 75대 차량이 참가, 5개국을 돌며 6개 라운드로 진행된 이번 드리프트 대회에서 팀 넥센은 넥센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UHP) N9000을 장착하고 경기에 참가해 멋진 드리프트 기술을 펼쳤다. 넥센타이어는 금번의 좋은 성적이 유럽에서 넥센의 기업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전한 기부문화를 생활화합시다”



건전한 기부문화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요구하지도 말고 주지도 맙시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사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의  
최고 5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다공제의 불이익(24% 세율 적용 시)

3,000,000원 과다공제할 경우 추가부담세액

본세 3,000,000원 × 24% = 720,000원 / 가산세 720,000원 × 50% = 360,000원

총 부담세액 1,080,000원

※제보 전화번호 「세미라클센터(국번없이 126)」

부산지방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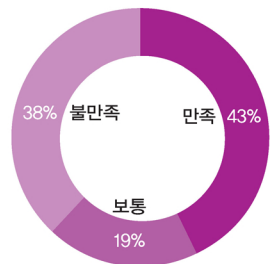
# 〈헬로우넥센〉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2013년 〈헬로우넥센〉은 ‘내 삶을 바꾸는 즐거운 변화’라는 주제로 사내외보를 아우르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2013년 〈헬로우넥센〉을 과연 넥센타이어 사우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설문은 사내포탈 + 사내게시판 부착 등을 이용해 전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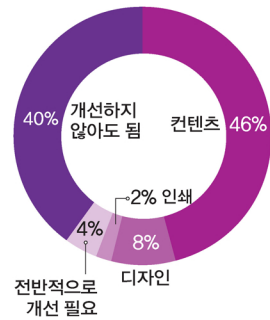
## 1 2013년 〈헬로우넥센〉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평가해주세요.



사보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엇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은 사내보를 좋아하는 독자와 사외보를 좋아하는 독자의 기호 차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만족도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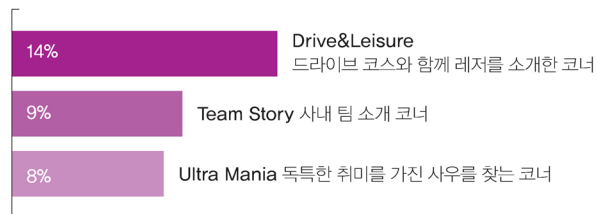


## 4 〈헬로우넥센〉에 변화를 준다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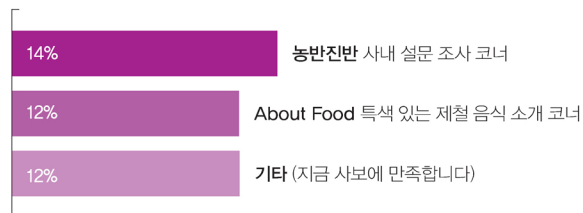
컨텐츠의 변화를 원하는 독자가 가장 많았으며 맛집 소개, 부서 간 화합 코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2014년 기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변화를 원하지 않는 독자도 40%로, 현재 〈헬로우넥센〉에 대해 칭찬해주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2 〈헬로우넥센〉의 어떤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까?



사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더불어 최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 관련 코너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3 〈헬로우넥센〉의 어떤 기사가 가장 불만족스러웠습니까?



사우들이 참여하는 코너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만, 정작 가장 사우들의 참여율이 높은 설문조사 코너가 불만족스럽다는 사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코너가 전 사원을 아우르지 못한 점, 주제가 흥미롭지 못한 점 등의 이유가 손꼽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금 사보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12%나 나타났습니다.

## Hello NEXEN

사보를 만드는 경영관리팀 박수현입니다. 〈헬로우넥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담당자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감추려면 감출 수도 있었겠지만, 독자들에게 공개하고 보다 나은 〈헬로우넥센〉을 향해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2014년엔 다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헬로우넥센〉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들의 생각을 〈헬로우넥센〉 담당자와 나누는 'N Voice'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pilogue

###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nexen) 메시지,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1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월 15일까지 아래 사보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 사보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 포토퍼즐 맞추기

뒤죽박죽 섞인 사진 조각의 제자리를 찾아 멋진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해주세요.



### 지난 호 정답

8	7	6	9	4	2	5	1	3
2	4	1	5	3	7	9	6	8
5	3	9	8	1	6	4	2	7
9	6	4	2	7	8	3	5	1
3	8	2	1	6	5	7	9	4
7	1	5	4	9	3	2	8	6
1	9	8	3	2	4	6	7	5
6	5	3	7	8	9	1	4	2
4	2	7	6	5	1	8	3	9

### 퀴즈 당첨자

- 이춘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김재경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황정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안영선 경상남도 밀양시 상문동
- 황병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 정남희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 석상훈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 김상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 박기찬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 정우리 부산시 서구 압남동